

- 2010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문법(언어)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교재를 양면 인쇄하시면 A4 한 장에 4문제가 들어갑니다.
- 인쇄된 교재를 한 장 뽑아 반으로 접으면 대다수의 책 속에 쏙 들어갑니다.
- 매일 한 장씩, 틈날 때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세요.
- 언제 어디서나 기출이 필요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 [클린엑스]v3.0은 총 80쪽이며, 159문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음운 - 형태소와 단어 - 문장성분 - 어휘 의미 - 국어사 순서입니다.
- 정답은 하단에 산수 문제로 표기해두었습니다.
- 파란문법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CleanX]v3.0의 해설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 인증샷을 mrcafroxia@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 마지막 장(81쪽)에는 학년도별 정답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단 연산 결과 값이 정답과 상이할 경우 꼭 제보해주세요^^

30. ‘못한’을 표준 발음으로 읽을 때,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변동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보 기>—————

-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변동 이전	→	변동 이후	
㉠ XaY	→	XbY	(교체)
㉡ XY	→	XaY	(첨가)
㉢ XabY	→	XcY	(축약)
㉣ XaY	→	XY	(탈락)
㉤ XabY	→	XbaY	(도치)

- ‘못한 $\xrightarrow{\text{㉠}}$ [] $\xrightarrow{\text{㉡}}$ []’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 | | | | | | |
|---|----------|----------|---|----------|----------|
| | <u>㉠</u> | <u>㉡</u> | | <u>㉠</u> | <u>㉡</u> |
| ① | a | c | ② | a | d |
| ③ | b | d | ④ | b | e |
| ⑤ | c | e | | | |

출처: 2010학년도6월모평(변형) / 정답: (1+3+2+5)-5×2

12. <보기>는 겹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될 때, 겹받침의 자음 중 발음되는 것을 [] 속에 적은 ‘표준 발음’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맑-도록 [ㄱ]	늡-지 [ㄱ]	읽-지 [ㄱ]
㉡ 맑-게 [ㄹ]	늡-고 [ㄹ]	읽-거나 [ㄹ]
㉢ 닭-같이 [ㄱ]	흙-과 [ㄱ]	참-과 [ㄱ]
㉣ 얹-도록 [ㄹ]	늡-지 [ㄹ]	밟-도록 [ㅂ]
㉤ 얹-게 [ㄹ]	늡-고 [ㄹ]	밟-게 [ㅂ]

—<보 기>—

제5항
 ㉠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어깨, 잔뜩, 살짝, 듬뿍, 몽땅
 ㉡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법석

제27항
 ㉢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칼날, 꽃잎, 만사위, 흠이불

- ①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ㄹ’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② ㉠, ㉢를 보니, ‘ㄹ’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같군.
- ③ ㉢, ㉣를 보니, ‘ㄹ’의 발음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④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ㅂ’의 발음은 ‘ㅃ-’, ‘ㄴㅂ-’의 경우와 ‘ㅁㅂ-’의 경우가 서로 다르군.
- ⑤ ㉣, ㉤를 보니, 동일 용언 어간의 ‘ㅂ’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① ㉠를 보니 모음 뒤나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군.
- ② ‘납짝’이 아니라 ‘납작’으로 적는 것은 ㉡의 ‘법석’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짹짹하다’가 아니라 ‘짹짹하다’로 적는 것은 ㉢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군.
- ④ ‘물뽕’이 아니라 ‘물병’으로 적는 것은 ㉣의 ‘칼날’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깍뚜기’가 아니라 ‘깍두기’로 적는 것은 ㉤의 ‘만사위’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출처: 2011학년도9월모평 / 정답: (1+3+4+2)÷2

출처: 2011학년도수능 / 정답 = (2+3+1+1+2)-3×2+2

11.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밭’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볼, 불)
-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pingping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출처: 2014학년도예비시행A / 정답 = (3+2+5+2)-2×5

11. (가)는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발음 관련 질문들이다. 답변할 때 (나)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가)

ㄱ. ‘여덟이, 여덟이야’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가요?
 ㄴ. ‘육학년’은 [유강년]이 맞나요, [유강년]이 맞나요?
 ㄷ. ‘걸으로’를 [거츠로]로 발음하면 왜 틀리나요?
 ㄹ. ‘빛이, 빛은’을 [비시], [비슨]으로 발음해도 괜찮나요?
 ㅁ. ‘낮’은 ‘밤낮으로’에서와 ‘낮일’에서의 발음이 왜 다른가요?

(나)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가 올 때 앞 음절의 종성이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앞’에 조사 ‘이’가 결합할 때 [아피]로 발음되는 것이 대표적인 연음의 예이다. 연음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표준 발음 여부를 판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부엌이, 부엌은’을 흔히 [부어기], [부어근]으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연음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잘못된 발음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ㅁ

출처: 2014학년도예비시행B / 정답 = 3×3-2-2-3

11. <보기>를 고려하여 모음의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1.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 기〉—

—〈보 기〉—

모음의 표준 발음

-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 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ㅛ,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데, 특히 ‘ㅛ’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꺄]와 같아진다.
- ‘예, 레’ 이외의 ‘ㅛ’는 [꺄]로 발음할 수 있다.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ㄱ’은 항상 []로 발음되,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로, 조사 ‘의’는 [꺄]로 발음할 수 있다.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① ‘개’와 ‘꺄’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② ‘금꺄’를 [꺄]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지꺄’를 [지꺄]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비꺄다’와 ‘비치다’를 모두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⑤ ‘충의의 뜻’에서 ‘충의의’를 [충이에]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① ‘가랑잎[가랑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값지다[꺄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꺄행열차[꺄꺄열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서른여덟[서른너덜]’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출처: 2014학년도6월모평B / 정답 = (3+1+2)×3-13

출처: 2014학년도9월모평A / 정답 = 2×7-4-2×3

12. 다음은 표준 발음에 관한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1.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질문: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하는 게 맞나요? 같은 받침 ‘ㅍ’
인데 [ㅍ]과 [ㅂ]으로 그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요.

▶ 답변: ‘앞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마지막 받침 ‘ㅍ’을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반면, ‘앞’과 ‘앞’이 결합한 ‘앞앞’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
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 받침을 ㉡대표음
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그래서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됩니다. ㉠과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빗 → [빈], 앞 → [압], 안팎 → [안팍]
- ㉡ 약밥 → [약뻬], 잡다 → [잡따]
- ㉢ 놓지 → [노치], 만형 → [마텝]

- ① ㉠과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가)

- ① ‘무릎이야’는 ㉠에 해당하고 ‘무릎 아래’는 ㉡에 해당합니다.
- ② ‘서넛이나’는 ㉠에 해당하고 ‘서넛에서’는 ㉡에 해당합니다.
- ③ ‘걸으로’와 ‘걸아가미’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④ ‘배꽃이’와 ‘배꽃 위’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⑤ ‘빛에’와 ‘빛이며’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출처: 2014학년도9월모평B / 정답 = (1+3+5+7)-4×3-3

출처: 2014학년도수능A / 정답 = (1+3+5+7)-4×3-1

11.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

1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짝 지은 것은?

— <보 기> —

‘<한글 맞춤법>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새말 만들기 활동에서 ‘꽃잎 표면에 이랑처럼 주름이 진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꽃이랑’, ‘꽃의 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꽃오목’을 만들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보니, ‘꽃이랑’은 (㉠), ‘꽃오목’은 (㉡)으로 발음해야 해.

- | | |
|----------|--------|
| ㉠ | ㉡ |
| ① 길이, 마중 | 무덤, 지붕 |
| ② 무덤, 지붕 | 뒤뜰, 쌀알 |
| ③ 뒤뜰, 쌀알 | 무덤, 지붕 |
| ④ 길이, 무덤 | 뒤뜰, 쌀알 |
| ⑤ 마중, 지붕 | 길이, 쌀알 |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곁-옷[거돋], 헛-웃음[허두슴]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예 담-요[담 : 뇨], 흘-이불[훈니불]

- | | | | |
|---------|-------|---------|-------|
| ㉠ | ㉡ | ㉠ | ㉡ |
| ① [꼰이랑] | [꼬도목] | ② [꼰이랑] | [꼬초목] |
| ③ [꼰이랑] | [꼰노목] | ④ [꼬디랑] | [꼬초목] |
| ⑤ [꼬디랑] | [꼬도목] | | |

출처: 2014학년도수능B / 정답 = (1+1+1+4+2)-3×2-1

출처: 2014학년도수능B / 정답 = (1+3+5+7)-4×3-3

1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 료> —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아, 야, 와, 의)
 ㄴ.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끼, 노, 며, 소)
 ㄷ. '중성+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알, 억, 영, 완)
 ㄹ. '초성+중성+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각, 녹, 딸, 형)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어법에 맞게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간혹 이 사실을 모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틀릴 때가 있다.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발음	
들어서다	드러서다	[드러서다]	……㉠
그렇지	그러치	[그러치]	……㉡
해돋이	해도지	[해도지]	……㉣

-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 ③ 종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 ④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 ① ㉠은 연음 현상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② ㉠과 같은 예로 '높이다'를 '높히다'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은 거센소리되기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④ ㉡과 같은 예로 '엷혀'를 '엷켜'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⑤ ㉣과 같은 예로 '금붙이'를 '금부치'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출처: 2015학년도6월모평A / 정답 = (1+1+1+4+2)-3×2-2

출처: 2015학년도6월모평B / 정답 = (1+3+5+7)-4×3-2

1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선생님 : 로마자 표기법은 국제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다음 자료로 탐구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표기	표준 발음	올바른 로마자 표기	
가락	[가 락]	garak㉠
앞집	[압 째]	apjip㉡
장릉	[장:농]	jangnong㉢

학 생 :

(가)

- ① ㉠에서 ‘가’의 ‘ㄱ’은 ‘g’로, ‘락’의 ‘ㄱ’은 ‘k’로 표기한 것을 보니, ‘가락’의 두 ‘ㄱ’은 같은 자음이지만 다른 로마자로 적었어요.
- ② ㉡에서 ‘앞’의 ‘ㅍ’과 ‘집’의 ‘ㅂ’을 모두 ‘p’로 표기한 것을 보니, ‘앞집’의 ‘ㅍ’과 ‘ㅂ’은 다른 자음이지만 동일한 로마자로 적었어요.
- ③ ㉢에서 장음을 표시하는 기호인 ‘:’가 로마자 표기에 없는 것을 보니, 장단의 구별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 ④ ㉠에서 ‘락’의 ‘ㄹ’은 ‘r’로, ㉢에서 ‘릉’의 ‘ㄹ’은 ‘n’으로 표기한 것을 보니, ㉢ ‘장릉’의 로마자 표기는 자음 동화를 반영하여 적었어요.
- ⑤ ㉡에서 ‘집’의 ‘ㅈ’과 ㉢에서 ‘장’의 ‘ㅈ’을 같은 로마자로 표기한 것을 보니, ㉡ ‘앞집’의 로마자 표기는 된소리되기를 반영하여 적었어요.

출처: 2015학년도6월모평B / 정답 = 2×7-2×3-3

—————<보 기>—————

학 생 : ‘식물’이 [싱물]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조음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선생님 : 아래의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조음 방식 \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파열음	ㅂ	ㄷ
비음	ㅁ	ㄴ	ㅇ

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의 일부입니다. ‘식’의 ‘ㄱ’이 ‘물’의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지요. 이와 비슷한 예들로는 ‘입는 [임는]’, ‘뜯는[뜯는]’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학 생 :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_____ ㉠ _____ 이/가 변했네요.

- ① 앞 자음의 조음 방식
- ② 뒤 자음의 조음 방식
- ③ 두 자음의 조음 방식
- ④ 앞 자음의 조음 위치
- ⑤ 뒤 자음의 조음 위치

출처: 2015학년도9월모평A / 정답 = (1+3+5+7)-4×3-3

11.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오늘은 겹받침 ‘ㅃ’의 표준 발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ㅃ’과 관련한 발음 원칙을 정리한 내용을 잘 보세요.

- ㉠ 겹받침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ㅍ]으로 발음한다.
- ㉡ 겹받침 ‘ㅃ’은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뒤의 ‘ㅁ’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어간의 겹받침 ‘ㅃ’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선생님: 자, 그러면 겹받침 ‘ㅃ’을 갖는 말의 표준 발음이 ㉠~㉢ 중 어느 발음 원칙과 관련되는지 말해 봅시다. 모음의 장단(長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 생: _____ [가]

- ① ‘삶과 자연’에서 ‘삶과’의 표준 발음이 [삼과]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② ‘국수를 삶고’에서 ‘삶고’의 표준 발음이 [삼꼬]인 것은 ㉠, ㉢에 따른 것입니다.
- ③ ‘바람직한 삶’에서 ‘삶’의 표준 발음이 [삼]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④ ‘삶에 대한 의지’에서 ‘삶에’의 표준 발음이 [살메]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⑤ ‘나의 삶만’에서 ‘삶만’의 표준 발음이 [삼만]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출처: 2015학년도9월모평B / 정답 = (1+3+5+7)-4×3-1+2

—<보 기>—

[제19항]

- 어간에 ‘-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예) 먹이, 굳이, 같이 ㉠

[제25항]

- ‘- 하다’가 붙는 어근에 ‘- 히’나 ‘-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예) 꾸준히, 깨끗이 ㉡
- 부사에 ‘-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예) 더욱이, 생긋이 ㉢

- ① ‘급히 떠나다’의 ‘급히’는 ㉠의 ‘굳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② ‘방긋이 웃다’의 ‘방긋이’는 ㉠의 ‘같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많이 먹다’의 ‘많이’는 ㉡의 ‘꾸준히’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④ ‘깊이 파다’의 ‘깊이’는 ㉡의 ‘깨끗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일찍이 없던 일’의 ‘일찍이’는 ㉢의 ‘더욱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출처: 2015학년도9월모평B / 정답 = 2×7-2×3-4+1

11.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11.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 기+어 → [기여]
- ㉢ 살피+어 → [살피]
- ㉣ 배우+어 → [배워]
- ㉤ 나서+어 → [나서]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출처: 2015학년도수능A / 정답 = (1+1+1+4+2)-3×2

—<보 기>—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이 조항은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자음이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표준 발음 자료

읽다[익따], 읊는[음:는], 닦지[닥찌], 읊기[읍끼], 밝는[밤:는]

- ① ‘읽다[익따]’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② ‘읊는[음:는]’은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③ ‘닦지[닥찌]’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④ ‘읊기[읍끼]’는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 ⑤ ‘밝는[밤:는]’은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출처: 2015학년도수능B / 정답 = (1+3+5+7)-4×3-1+2

13.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엿저녁에는 고향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
- ② 그가 발의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 ③ 적잖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
- ④ 동생은 누나가 직접 만든 깍뚜기를 먹어 보았다.
- ⑤ 저기 넓적하게 생긴 바위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출처: 2015학년도수능B / 정답 = (1+1+1+4+2)-3×2-1

11.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이 동화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듣+고 → [듣꼬] ㉡ 놓+고 → [노코]
 ㉢ 훔+네 → [훔레] ㉣ 뿔+느라 → [뿔느라]
 ㉤ 넓+더라 → [널떠라]

학생: _____ [가] _____

- ①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ㄱ’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ㄱ’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②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ㅎ’이 ‘ㄱ’의 영향을 받아 ‘ㅎ’과 거센소리라는 점이 같은 ‘ㅋ’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③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ㄴ’이 ‘ㅌ’의 영향을 받아 ‘ㅌ’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ㄹ’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④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ㅂ’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콧소리라는 점이 같은 ‘ㄹ’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⑤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ㅂ’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동일한 소리인 ‘ㄷ’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출처: 2016학년도6월모평A / 정답 = 5+4+3+2+1-1-2-3-5

11.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11.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3점]

—<보 기>—

—<보 기>—

<표준 발음법의 '된소리되기' 중 일부>

국어에는 거센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어간 받침 ‘ㄴ(ㄴx), ㄹ(ㄹx)’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어간 받침 ‘ㄹ, ㄹx’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 ㉠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밥하고[바파고] 떡이다.
- ㉡ 옷에 흠까지[흑까지] 묻히고 시내를 쏘다녔다.
- ㉢ 우리는 손을 잡고[잡꼬] 마냥 즐거워하였다.
- ㉣ 그는 고전 음악을 즐겨 듣는다[듣는다].
- ㉤ 칼날[칼랄]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① ‘(가슴에) 품을 적에’와 ‘(머느리로) 삼고’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② ‘(방이) 넓거든’과 ‘(두께가) 얇을지라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③ ‘(신을) 신겼네요’와 ‘(땅을) 밟지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④ ‘(남들이) 비웃을지언정’과 ‘(먼지를) 훑던’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⑤ ‘(물건을) 엮지만’과 ‘(자리에) 앉을수록’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① ㉠의 예 : 먹히다, 목걸이
- ② ㉡의 예 : 값싸다, 닭똥
- ③ ㉢의 예 : 굳세다, 숨이불
- ④ ㉣의 예 : 겁내다, 맨입
- ⑤ ㉤의 예 : 잡히다, 설날

출처: 2016학년도6월모평B / 정답 = 9+8+7+6-5-5-4-4-3-3-1

출처: 2016학년도9월모평A / 정답 = 1+3+5+7+11-9-9-7

11.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은?

11.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받침 ‘ㄷ, ㅌ’이 조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스, 츠]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밭이[바치]

㉡ 받침 ‘ㄷ, ㅌ(ㅌ)’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스, 츠]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미달이[미다지]

㉢ 받침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예) 묻히다[무치다]

㉠ 옳지 → [올치], 좁히다 → [조피다]
㉡ 끊어 → [끄너], 쌓이다 → [싸이다]
㉢ 솟도 → [순또], 웃고름 → [온꼬름]
㉣ 닳는 → [당는], 부엌문 → [부엌문]
㉤ 읽지 → [익찌], 훑거나 → [훑꺼나]

- ① ‘같이 걷다’의 ‘같이’는 ㉠에 따라 ‘ㅌ’을 [츠]으로 바꿔 [가치]로 발음해야겠군.
- ② ‘솔이나 냄비를 준비하다’의 ‘솔이나’는 ㉠에 따라 ‘ㅌ’을 [츠]으로 바꿔 [소치나]로 발음해야겠군.
- ③ ‘그것은 팔이다’의 ‘팔이다’는 ㉡에 따라 ‘ㅌ’을 [츠]으로 바꿔 [파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④ ‘자전거에 받히다’의 ‘받히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바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⑤ ‘우표를 붙이다’의 ‘붙이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부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① ㉠,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 ㉢, ㉣: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 ‘깊다 → [깁따]’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 ‘겉모양 → [건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 ‘얹고 → [안꼬]’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출처: 2016학년도9월모평B / 정답 = 7+5+3+1-8-6

출처: 2016학년도수능A / 정답 = 8+6+4-7-5-3

11.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 < 보 기 > —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ㅆ]으로 발음한다. …………… ㉠
- 겹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으로 발음한다. …………… ㉡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ㄱ, ㄴ]은 ‘ㄴ, ㄹ’ 앞에서 각각 [ㅇ, ㄹ]으로 발음한다. …………… ㉢
 - [ㄱ,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ㄱ, ㄷ, ㅂ,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 [ㄱ, ㄴ]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ㆁ]으로 발음한다. ……………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이	㉠	[여더리]
②	몫+을	㉠	[목슬]
③	흙+만	㉡, ㉢	[흑만]
④	값+까지	㉡, ㉣	[갑까지]
⑤	닭+하고	㉡, ㉤	[다카고]

출처: 2016학년도수능B / 정답 = 17-9-4-1+2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어	합성어
㉠만 충족한 경우	㉠	㉡
㉡만 충족한 경우	㉢	㉣
㉠, ㉡ 모두 충족한 경우	㉤	줄자(줄+자), 눈물(눈+물)

- ① ㉠: 이파리(잎+아리), 얼음(얼+음)
- ② ㉡: 마소(말+소), 낮잠(낮+잠)
- ③ ㉢: 웃음(웃+음), 바가지(박+아지)
- ④ ㉣: 웃소매(웃+소매), 밥알(밥+알)
- ⑤ ㉤: 꿈(꾸+ㅁ), 사랑니(사랑+이)

출처: 2016학년도수능B / 정답 = 25-17-5+1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꼐말]
㉣ 굽+고 → [글꼬]

- ① ㉠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 ㉢ : ‘입+니→[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 ㉢ : ‘팔+죽 → [판죽]’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 :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출처: 2017학년도6월모평 / 정답 = 10-3-2

12.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뭉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 [비웁]’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않고[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웁고[웁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출처: 2017학년도수능 / 정답 = 9-3-1

13.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흙하고[흐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 ③ ‘부엌문[부영문]’과 ‘볶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④ ‘없지[언찌]’와 ‘뭉고[물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 ⑤ ‘넓네[널레]’와 ‘밝는[방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14.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흙일 → [홍닐]
 ㉡ 닭는 → [달른]
 ㉢ 발야구 → [발랴구]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탐구 과제

겹받침을 가진 용언을 발음할 때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나야 표준 발음에 맞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으로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을 설명해 보자.

○ 탐구 자료

	비표준 발음	표준 발음
㉠ 굵는	[글른]	[궁는]
㉡ 째네	[째네]	[잘레]
㉢ 끈기고	[끈기고]	[끈키고]
㉣ 똥지	[똥찌]	[똥치]

○ 탐구 내용

㉠의 비표준 발음과 ㉡의 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의 표준 발음과 ㉡의 비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가 나타난다. ㉢과 ㉣의 표준 발음은 (㉢)만 일어난 발음이다.

㉠ ㉡ ㉢

- | | | |
|-------|-------|--------|
| ① 유음화 | 비음화 | 거센소리되기 |
| ② 유음화 | 비음화 | 된소리되기 |
| ③ 비음화 | 유음화 | 거센소리되기 |
| ④ 비음화 | 유음화 | 된소리되기 |
| ⑤ 비음화 | 된소리되기 | 거센소리되기 |

출처: 2019학년도6월모평 / 정답 = 6-3-3+1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로마자 표기 한글 대조표>

자음	ㄱ	ㄷ	ㅂ	ㅌ	ㄴ	ㄹ	ㅇ	ㅈ	ㅊ	ㅌ	ㅎ	
표	모음 앞	g	d	b	tt	n	m	ng	j	ch	t	h
기	그 외	k	t	p								

모음	ㅏ	ㅑ	ㅓ	ㅕ
표기	a	ae	o	i

<로마자 표기의 예>

	한글 표기	발음	로마자 표기
㉠	같이	[가치]	gachi
㉡	잡다	[잡따]	japda
㉢	놓지	[노치]	nochi
㉣	맨입	[맨닙]	maennip
㉤	백미	[뱅미]	baengmi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땀받이[땀바지]’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삭제[삭찌]’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닭아[다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한여름[한녀름]’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밤물[밤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처: 2019학년도9월모평 / 정답 = 6-3-2

42. <보기>의 ㉠~㉥ 중,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보 기>—————

한 상무 : 김 부장, 일찍 왔군. 많이 기다렸나?

김 부장 : ㉠상무님도 때 맞춰 오셨네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나저나 저희 고모님이 오늘은 좀 늦으시는군요.

한 상무 : 뭘, 아직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리고 보니 ㉡고모님 뵙는 게
몇 년 만인가? ㉢우리를 친자식처럼 챙겨 주셨지.

김 부장 : 어, 저기 ㉣내외분이 같이 오시네. 여깁니다. 고모, 고모부!

고모 : 어머! 이게 누구야? 한 상무 아니야? 우리 ㉤김 부장 잘 좀
부탁드려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출처: 2013학년도6월모평(변형) / 정답 = (1+3+5+7)-4×3-1-2

43. 밑줄 친 단어들이 서로 다른 인칭으로 묶인 것은?

- ① 너 어제 내가 말한 대로 했지?
일전에 너의 발표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단다.
- ② 난 자기가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어.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다.
- ③ 자네가 바로 우리 회사가 찾던 인재야.
요즘 자네의 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 ④ 그대가 보여 준 정성은 영원히 잊지 않겠소.
서영 씨, 환히 웃는 그대 얼굴이 제 머리를 맴돕니다.
- 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2013학년도6월모평(변형) / 정답 = (1+3+5+7)-4×3-3+1

11.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15.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웃보’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 호: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이’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

- 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지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②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③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④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담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출처: 2013학년도수능 / 정답 = (3+1+2)×3-13-4

출처: 2014학년도예비시행AB / 정답 = 2×7-2×3-4+1

12.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문장

- 아침에 하는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설명

㉠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리-’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기 2>—

- 그는 멋지게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
- 그 가수는 현란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 오늘따라 학생들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그림.”이라고 썼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출처: 2014학년도6월모평A / 정답 = (1+3+5+7)-4×3-1

1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 “<u>아니요</u>, 모르겠습니다.” • (친구에게) “<u>아니</u>, 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주인공이 <u>아니오</u>.”
----	---	---

의문점 '아니요'의 '요'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문제 탐구	자료에서 ‘아니요’의 쓰임을 확인한다. ☞ 뒷사슴이 묻는 말에 부정으로 대답할 때 쓰이는데, ‘아니’에 ‘요’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보어를 취하는 서술어로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요’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뭘 할까요? 뭘 할까? • 어서요, 빨리요. ☞ 단어, 어절 어미 등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인데, ‘요’가 빠지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얼마나 기쁘오? 얼마나 기쁘니? • 일단 멈추시오.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5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10px auto;">㉠</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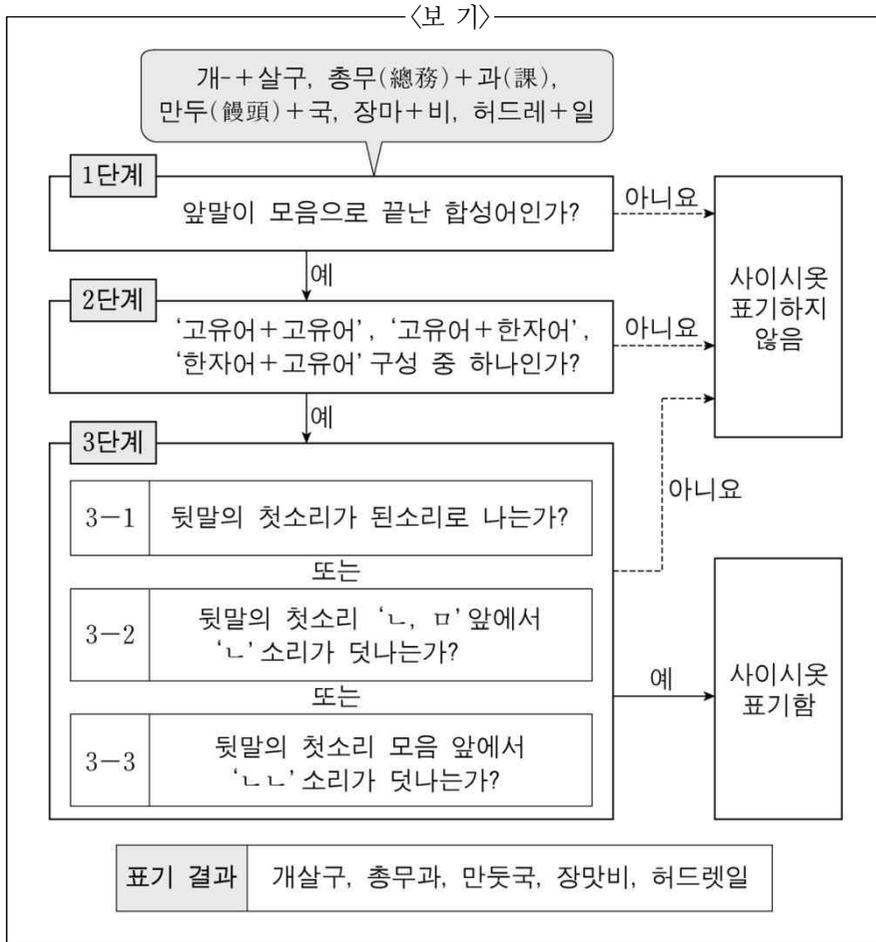
적용 “그러면 안 되□.”의 □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출처: 2014학년도6월모평B / 정답 = 2×7-2×3-4-1

11.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 생: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이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옹다옹한단다.

- ① '개+살구'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② '총무+과'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③ '만두+국' 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쓴다.
- ④ '장마+비'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쓴다.
- ⑤ '허드레+일'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이라고 쓴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 2014학년도9월모평B / 정답 = (3+1+2)×3-13-1

출처: 2014학년도수능AB / 정답 = (1+1+1+4+2)-3×2-1+3

12.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의 조사 중에는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격 조사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가 있다. 격 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 가령 주격 조사는 주어에,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에 쓰인다. 반면 보조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

- ① ‘삼촌이 밤에만 글을 썼다.’에서의 ‘만’.
- ② ‘선수들이 오늘은 간식을 먹었다.’에서의 ‘은’.
- ③ ‘내가 친구한테 가방을 선물했다.’에서의 ‘한테’.
- ④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악기도 연주한다.’에서의 ‘도’.
- ⑤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까지 만들었다.’에서의 ‘까지’.

출처: 2015학년도6월모평A / 정답 = (1+3+5+7)-4×3-3+2

14.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문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 보자.

- 열심히 살을 ㉠살아가다.
-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 딸이 엄마를 ㉢뵈아가다.

확인 사항

-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
-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쓸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도 허용한다.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다.

문제 해결 과정

㉠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뵈아가다

```

    graph TD
      A[㉠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뵈아가다] --> B{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나요?}
      B -- 예 --> C[㉠]
      B -- 아니요 --> D{'-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나요?'}
      D -- 예 --> E[㉡]
      D -- 아니요 --> F[㉢]
    
```

	㉠	㉡	㉢
①	살아가다	받아 가다	뵈아 가다 또는 뵈아가다
②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뵈아 가다
③	살아가다	받아가다	뵈아 가다
④	살아 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뵈아가다
⑤	살아 가다	받아가다	뵈아 가다 또는 뵈아가다

출처: 2015학년도6월모평AB / 정답 = 2×7-2×3-4-3

12. <보기>의 ㉠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단어가 아닌 ‘오고 가다’를, 한 단어인 ‘뛰어가다’, ‘오가다’와 비교해 보자.

-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가다.
- 오가는 사람이 많다.

‘오고 가다’라는 구(句)는 단어 ‘오다’의 어간 ‘오-’에 연결어미 ‘-고’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가다’는 ‘뛰다’와 ‘가다’의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이다. 한편 ‘오가다’는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뛰어가다’와 차이가 있다.

- ① 꿈꾸다
- ② 돌아서다
- ③ 뒤섞다
- ④ 빛나다
- ⑤ 오르내리다

출처: 2015학년도9월모평A / 정답 = (1+1+1+4+2)-3×2-1

14.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더-하다

Ⅰ ㉠

【…보다】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다.
 『추위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하다.』

Ⅱ 동사

① ㉡ 【…을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목적어가 복수의 의미를 지닌다))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 / 2만 원을 3만 원과 더하면 5만 원이다. / 아래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시오.』

② ㉢ 【…에】 【…에/에게 …을】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
 『너의 격려는 나의 자신감을 더해 준다. / ㉣ / 그의 표정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더해 주었다.』

③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
 『그는 갈수록 고약한 잠버릇이 더했다. / ㉣』

덜-하다 형용사

【…보다】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다.
 『찌개 맛이 어제보다 덜하다.』 반의어 ㉣

- ① ㉠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이다.
- ② ㉡에 들어갈 말은 ‘【…에 …을】’이다.
- ③ ㉢에는 ‘그의 등장은 영화에 재미를 더했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에는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한다.’를 넣을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더하다Ⅱ②’이다.

출처: 2015학년도수능AB / 정답 = (1+3+5+7)-4×3-3+4

12.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과 「조사」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

①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막내는 큰형과 닮았다. / ㉠』

②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는 방에서 동생과 조용히 공부했다. / ㉡』

③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 『그는 거대한 폭력 조직과 맞섰다.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닭과 오리는 동물이다. / 책과 연필을 가져와라.

유의어 하고, ㉣

형태 정보 받침 없는 체언 뒤에는 ‘ ㉣ ’가 붙는다.

- ① ㉠에는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귀다.’를 넣을 수 있다.
- ② ㉡에는 ‘그는 형님과 고향에 다녀왔다.’를 넣을 수 있다.
- ③ ㉢에 들어갈 말은 ‘격 조사’이다.
- ④ ㉣에 ‘이랑’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와’이다.

출처: 2016학년도6월모평A / 정답 = (1+2+3+4)-3×2-2-1

12.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 생: ‘되어요, 돼요, 되요’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어간 모음 ‘괴’ 뒤에 ‘-어’가 붙어서 ‘괘’로 줄어드는 것은 ‘괘’로 적는다.”라는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되어요’는 어간 ‘되-’에 ‘-어요’가 결합된 것이므로 ‘돼요’로 줄어 들 수 있어. 그러니까 ‘되어요, 돼요’는 맞는 말이지만 ‘되요’는 틀린 말이지. ‘(바람을) 쐬다, (턱을) 괴다, (나사를) 죄다, (어른을) 뵈다, (명절을) 쇠다’ 등도 이 규정에 따라 적으면 돼.

학 생: 아, 그러면 ㉠

- ① ‘쐬어라’는 ‘쐬-’와 ‘-어라’가 결합된 것이므로 ‘쐬라’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 ② ‘괴-’와 ‘-느냐’가 결합될 때는 ‘어’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괘느냐’는 틀린 말이겠네요.
- ③ ‘쐬도’는 ‘죄-’와 ‘-어도’가 결합된 말이 줄어드는 것이겠네요.
- ④ ‘뵈-’가 ‘-어서’와 결합되면 ‘뵈서’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 ⑤ ‘쇠-’와 ‘-더라도’가 결합될 때는 ‘쐬더라도’로 적으면 틀린 것이겠네요.

출처: 2016학년도6월모평B / 정답 = 7+6+5+4+3-9-8-7

1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굳다 (굳어, 굳으니, 굳는)

㉠㉡

㉠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 『시멘트가 굳다

㉡ 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 『허리가 굳다

㉢㉣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

『굳은 결심 / 성을 굳게 지키다

반의어 ㉠㉡ 녹다㉢㉣

녹다 (녹아, 녹으니, 녹는) ㉢

㉠ ㉡ 얼음이나 얼음같이 매우 차가운 것이 열을 받아 액체가 되다.

『얼음이 녹다 / 눈이 녹다

㉢ 고체가 열기나 습기로 말미암아 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물러지거나 물처럼 되다. 『엿이 녹다

㉣ 【...에】

㉠ 결정체(結晶體) 따위가 액체 속에서 풀어져 섞이다.

『소금이 물에 녹다

㉢ 어떤 물체나 현상 따위에 스며들거나 동화되다.

『우리 정서에 녹아 든 외국 문화

반의어 ㉠㉢ 굳다㉡

- ① ‘굳다’는 ‘녹다’와 달리 두 개의 품사로 쓰인다.
- ② ‘시멘트가 굳다’의 ‘굳다’와 ‘엿이 녹다’의 ‘녹다’는 반의 관계이다.
- ③ ‘굳다㉢’의 용례로 ‘마음을 굳게 단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녹다㉣㉠’의 용례로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녹아 있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⑤ ‘초콜릿이 순식간에 녹았다.’의 ‘녹다’는 ‘녹다㉣㉠’에 해당하므로 주어 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출처: 2016학년도6월모평B / 정답 = 2+3+5+7-2-4-6

—————<보 기>—————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의존 명사 :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
- 자립 명사 :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 ② 앉은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
-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숟가락 겨우 뜨셨다.
-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냇다 도망쳤다.

출처: 2016학년도9월모평A / 정답 = 2+3+5+7-2-4-4-6

12. <자료>의 밑줄 친 발음 표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때에 적용되는 원칙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자 료> —

㉠ 이것은 유명한 책이 [아니요].

㉡ 영화 구경 [가지요].

㉢ 이것은 [설탕이요], 저것은 소금이다.

— <보 기> —

○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 ㉠
이리로 오시오. (○) 이리로 오시요. (×)
-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 (○)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다. (×)
-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 ㉢
읽어 읽어요 먹을게 먹을게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출처: 2016학년도9월모평B / 정답 = 11-7-5+2

12. 다음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말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

학 생: 밑줄 친 말들은 모두 (가)

- 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 ②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③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 ④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⑤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출처: 2016학년도수능A / 정답 = 15-5-3-4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가치]

㉠ ㉡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 ㉣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 【(…과) …을】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함께하다①.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함께하다②.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이로군.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출처: 2016학년도수능AB / 정답 = 13-7-5+1

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 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

- 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 ②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 ③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지난달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
- ⑤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다.

출처: 2017학년도6월모평 / 정답 = 5-2-2

11. <보기2>는 <보기1>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보기1> —————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벽돌집’을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 <보기2> —————

학 생 :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 잘 이해했구나. 그럼 아래의 단어들도 분석해 보자.

㉠ 나들이웃	㉡ 눈웃음	㉢ 드높이다
㉣ 집집이	㉤ 놀이터	

- ①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 ②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④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⑤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출처: 2017학년도9월모평(변형) / 정답 = 5-2-1

13. <보기>의 ㉠~㉤에 쓰인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활용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용언의 활용형에서 선어말 어미는 없는 경우가 있어도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민수가 그 나무를 심었구나!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 그 친구가 설마 그 음식을 다 먹었겠니?
 ㉣ 그가 나에게 권한 책은 이미 읽은 책이다.
 ㉤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 ①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로 쓰였다.
- ② ㉡에는 ㉠은 없고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로 쓰였다.
- ③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 ㉡로 쓰였다.
- ④ ㉣에는 ㉠은 없고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로 쓰였다.
- ⑤ ㉤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이 ㉡로 쓰였다.

출처: 2017학년도9월모평 / 정답 = 5-1-1

14.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꿰였다.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꿰였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출처: 2017학년도수능(변형) / 정답 = 8-4-1

15.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셋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넷째로,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 ① ㉠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 ② ㉠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 ③ ㉠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④ ㉠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 ⑤ ㉠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출처: 2017학년도수능(변형) / 정답 = 8-3-1

11. <보기1>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2>의 ㄱ~ㅁ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일반적으로 합성 명사는 ‘논밭’처럼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건널목’과 같이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경우도 있고 ‘새색시’처럼 관형사가 명사와 결합한 경우도 있다.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뒤에 결합한 어근이 명사인 경우 보통은 합성 명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언중들 사이에 자주 쓰이는 말들은 위의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 많다. ‘인강’처럼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것 등 음절을 따서 줄여 만든 말이 많다.

—<보기 2>—

- ㄱ. ‘선생님’을 줄여서 ‘쌤’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ㄴ. ‘개-’와 ‘살구’를 결합하여 ‘개살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 ㄷ. ‘사뱀’과 ‘대학’을 결합하여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다.
- ㄹ. ‘점잖다’라는 형용사로부터 ‘점잔’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ㅁ. ‘비빔’과 ‘냉면’을 결합하여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출처: 2018학년도9월모평(변형) / 정답 = 8-4-2

12. 밑줄 친 단어 중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합성 명사는 ‘논밭’처럼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건널목’과 같이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경우도 있고 ‘새색시’처럼 관형사가 명사와 결합한 경우도 있다.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뒤에 결합한 어근이 명사인 경우 보통은 합성 명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언중들 사이에 자주 쓰이는 말들은 위의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 많다. ‘인강’처럼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것 등 음절을 따서 줄여 만든 말이 많다.

- ①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 ② 언니는 가구를 전부 새것으로 바꿨다.
- ③ 아이가 요사이에 몰라보게 훌쩍 컸다.
- ④ 오늘날에는 교육에서 창의성이 중시된다.
- ⑤ 나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출처: 2018학년도9월모평(변형) / 정답 = 8-4-3

15.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 그가 집에 갔다. /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
 ㉣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
 ㉤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

- ① ㉠을 보니, 선어말 어미 ‘-겠-’이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군.
- ②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③ ㉢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르’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④ ㉣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 ⑤ ㉤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군.

출처: 2018학년도9월모평(변형) / 정답 = 8-4-3

11. 다음 문장에서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 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 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 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 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 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출처: 2018학년도수능(변형) / 정답 = 7-2-1

13. <보기>의 [1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 단,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튀간, 횡수’는 예외이다.

○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 ㉠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것.
- ㉡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고유어+고유어 • 고유어+한자어 • 한자어+고유어
- ㉢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 두 말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남.
 -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ㄴ’ 소리가 덧남.
 -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

㉠~㉣ 각각의 쌍은 위 조건 ㉠~㉣ 중 [1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이다.

	사이시옷이 없는 단어	사이시옷이 있는 단어
㉠	도매가격[도매까격]	도맷값[도매깎]
㉡	전세방[전세빵]	아랫방[아래빵]
㉢	버섯국[버설국]	조갯국[조개국]
㉣	인사말[인사말]	존댓말[존댄말]
㉣	나무껍질[나무껍질]	나뭇가지[나무까지]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출처: 2019학년도6월모평 / 정답 = 5-3-1

15.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어말 어미 ‘-더-’는 시간 표현, 주어의 인칭, 용언의 품사, 문장 종결 표현 등과 다양하게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아까 달력을 보니 내일이 언니 생일이더라.’와 같이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면 ‘-더-’가 쓰일 수 있다. 또한 ‘-더-’가 쓰인 문장에는 특정 인칭의 주어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평서문에는 1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이 경우,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단, ㉣이때도 수사 의문문에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더라.’처럼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이 진술할 경우 ‘-더-’가 1인칭 주어와 쓰일 수 있다.

- ① ㉠ :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
- ② ㉡ :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 ③ ㉢ :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밉더냐?
- ④ ㉣ : 기어이 우승한 그날, 우리 어찌 아니 기쁘더냐?
- ⑤ ㉣ :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출처: 2019학년도6월모평 / 정답 = 5-3-1+4

11. 다음 문장에서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날 사진을 보니 즐거운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보 기>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 한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형태'는 단어가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에 관한 것이고 '기능'은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된다. '의미'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어 부류가 가지는 추상적인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적용하여 ㉠활용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활용하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활용하지 않으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 붙어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말,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 등으로 개별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 ① '옛날, 사진, 기억'은 ㉠에 해당하고 명사이다.
- ② '보니, 떠올랐다'는 ㉡에 해당하고 동사이다.
- ③ '하나'는 ㉢에 해당하고 수사이다.
- ④ '을, 가'는 ㉣에 해당하고 조사이다.
- ⑤ '즐거운'은 ㉤에 해당하고 관형사이다

출처: 2019학년도9월모평(변형) / 정답 = 8-4-1+2

12.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사물의 작용의 일종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동사는 의미상 매우 밀접하여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가령 '햇살이 밝다'에서의 '밝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날이 밝는다'에서의 '밝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활용 양상을 내세우기도 한다.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선어말 어미 '-ㄴ/는-',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청유형 종결 어미,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등과 결합하여 쓰이지 않는다. 다만, '있다'의 경우는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한 장소에 머물'의 의미인 '있다'는 동사로 분류되는데, 동사 '있다'뿐만 아니라 형용사의 '있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형용사 '없다'의 경우도 반의어인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여 준다.

<보기 2>

- ㉠ [영희가 밥을 먹었다. / 꽃이 예뻐다.
영희가 밥을 먹는다. / *꽃이 예쁘다.]
- ㉡ [영희야, 밥 먹어라. / *영희야, 좀 예뻐라.
영희야, 밥 먹자. / *우리 좀 예쁘자.]
- ㉢ [밥 먹으려고 식당으로 갔다. / *예쁘려고 미용실에 갔다.
밥 먹으러 식당에 갔다. / *예쁘러 미용실에 갔다.]
- ㉣ [나에게는 돈이 있다. / 돈이 있는 사람
나에게는 돈이 없다. / 돈이 없는 사람]
- ㉤ [나무가 크다. / 나무가 쑥쑥 크다.
머리카락이 길다. / 머리카락이 잘 긴다. ※ '*'는 비문임을 나타냄.]

- ① ㉠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 ② ㉡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명령형·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 ③ ㉢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의도·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 ④ ㉣ : '있다'와 '없다'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동사로 쓰이고 있다.
- ⑤ ㉤ : '크다'와 '길다'는 형용사, 동사로 모두 쓰이고 있다.

출처: 2019학년도9월모평(변형) / 정답 = 9-3-2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ㄹ’로 끝나는 명사 ‘밭’, ‘술’, ‘이틀’이 ㉠‘밭가락’, ㉡‘소나무’, ㉢‘이틀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ㄹ’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소나무’에서는 ‘밭가락’에서와는 달리 받침 ‘ㄹ’이 탈락하였고, ‘이틀날’에서는 받침이 ‘ㄹ’이 아닌 ‘ㄷ’이다. 모두 ‘ㄹ’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현대 국어에는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12. 윗글을 참고할 때, ㉠~㉢과 같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예를 <보기>에서 각각 하나씩 찾아 그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 <보 기> —

무술(물+술)	쌀가루(쌀+가루)
난알(난+알)	술방울(술+방울)
선달(설+달)	푸나무(풀+나무)

- ① 술방울, 무술, 난알 ② 술방울, 푸나무, 선달
- ③ 푸나무, 무술, 선달 ④ 쌀가루, 푸나무, 난알
- ⑤ 쌀가루, 술방울, 선달

출처: 2019학년도수능(변형) / 정답 = 9-5-2

12. <보기>를 바탕으로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와 ‘-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동수는 피아노를 치면서/ *쳤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 ㄴ. 동수가 집을 나서자/ *나섰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 ㄷ.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
- ㄹ. 동수는 상냥하면서/ *상냥하자 차분하다.
- ㅁ. 동수야, 빵 먹으면서/ *먹자 공부해라./공부하자./공부할래?
- ㅂ.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 놓았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으)면서’와 ‘-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 ㄴ과 ㅁ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군.
- ③ ㄴ과 ㄷ을 보니, ‘-자’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 주어가 달라야 하는군.
- ④ ㄷ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시’와 ‘나열’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군.
- ⑤ ㅂ을 보니, ‘-(으)면서’가 부정 표현과 어울리면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군.

출처: 2012학년도수능 / 정답 = (1+1+1+4+2)-3×2-1

11.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은 것은?

—————〈보 기〉—————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동일한 ‘체언 +격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①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어제 본 것은 이것과 꽤 비슷하다.
- ②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③ 그들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 ④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 ⑤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행상을 주셨다.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렸다.

출처: 2013학년도6월모평 / 정답 = (1+3+5+7)-4×3-1+2

12.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 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군.
- ⑤ ㉠과 ㉡을 보니,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군.

출처: 2014학년도예비시행A / 정답 = (1+3+5+7)-4×3-3+2

13.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문제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였던 것이다.
⇒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

(나) 중의적인 문장의 문제

- 접속 표현에 의한 것
(예) 민수와 진희는 결혼을 했다. [둘이 부부인 경우]
⇒ 민수는 진희와 결혼을 했다. ㉢
- 수식 구조에 의한 것
(예) 귀여운 영희 친구가 놀러 왔다. [친구가 귀여운 경우]
⇒ 귀여운 영희의 친구가 놀러 왔다. ㉣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출처: 2014학년도예비시행B / 정답 = (1+3+5+7)-4×3-1-2

13.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보 기〉—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학습 자료			
	A: 주동문	B: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C: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실내 온도가 낮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동생이 공을 찬다.	해당 사례 없음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군.
-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군.
-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군.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출처: 2014학년도6월모평A / 정답 = (1+1+1+4+2)-3×2-1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이제 오는구나.
 동생 : 누나밖에 없어?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 무슨 일인데?
 누나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 1>—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보기 2>—

원래의 문장 ⇒ 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 하지 마세요.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가)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나)

- | | | |
|---|-----|-----|
| | (가) | (나)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출처: 2014학년도6월모평AB / 정답 = (1+3+5+7)-4×3-1+2

출처: 2014학년도6월모평B / 정답 = 2×7-2×3-4-1

12.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를 분류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동생은 책을 읽었다.’의 ‘-다’
- ㉡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의 ‘-고’
- ㉢ 용언을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
예 ‘내일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해라.’의 ‘-을’

- ①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에 해당한다.
- ②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갔다 오시지요?’의 ‘-지요’는 ㉠에 해당한다.
- ③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의 ‘-니’는 ㉡에 해당한다.
- ④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의 ‘-으나’는 ㉡에 해당한다.
- ⑤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의 ‘-기’는 ㉢에 해당한다.

출처: 2014학년도9월모평A / 정답 = (1+3+5+7)-4×3-1

13.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정확한 문장	수정 방법	수정한 문장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u>대하지</u> 않는다.	‘대하지’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u>지내기도</u> 한다.	‘지내기도’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u>되지는</u> 못했다.	‘되지는’과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u>존경했다</u> .	‘존경했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이이의 호는 <u>울곡</u> 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u>유학자</u> 이다.	‘유학자이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 ① ㉠: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 ②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 ③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 ④ ㉣: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
- ⑤ ㉤: 이이의 호는 울곡이며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출처: 2014학년도9월모평B / 정답 = (1+1+1+4+2)-3×2-1+1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색깔이 희기가 눈과 같다.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 ①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출처: 2014학년도수능A / 정답 = (1+1+1+4+2)-3×2-1+2

13.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주어인 ‘사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①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②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
- ③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었다.
- ④ 새 기계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
- ⑤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

출처: 2014학년도수능B / 정답 = (1+1+1+4+2)-3×2-1

1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3점]

— <보 기> —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보이다’로 그 형태가 같다. 이때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였다. (사동사로 쓰인 경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피동사로 쓰인 경우)

- ① ㉠ : 운동화 끈이 풀렸다.
 ㉡ :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 ② ㉠ :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
 ㉡ :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 ③ ㉠ :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 :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 ④ ㉠ :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 :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 ⑤ ㉠ :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 아기 꿈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출처: 2015학년도6월모평A / 정답 = 2+(1+3+5+7)-4×3-1

12. 다음 중 수정 이유에 따라 고쳐 쓴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정확한 문장 표현 익히기
<p>사례 1]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이다. ㉠이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인 것이다. ... ①</p>	
<p>사례 2]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야구나 공을 찬다. ㉠이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공이나 야구를 한다. ②</p>	
<p>사례 3]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한다. ㉠이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없다. →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기대기도 한다. ③</p>	
<p>사례 4]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이유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이다. →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④</p>	
<p>사례 5] 누구나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이유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 누구도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⑤</p>	

출처: 2015학년도6월모평B / 정답 = (3+1+2)×3-2×7-1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것은?

— <보 기> —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었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가) 민수가 열심히 공부한다.
 (나) 형이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다)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민수’와 (나)의 ‘민수’가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민수가’가 (다)의 밑줄 친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①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 ② 동생은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
- ③ 영수가 버스에 탄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
- ④ 나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 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

15.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문법적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문장 → 수정한 문장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발을 넣었다.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물에 발을 넣었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동참합시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 ① ㉠ : 목적어인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 ② ㉡ :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③ ㉢ : 목적어의 하나인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④ ㉣ : 서술어인 ‘동참합시다’가 요구하는 부사어에 정확한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 ⑤ ㉤ : 부사 ‘여간’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영희: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둠 과제 발표는 내가 주도해서 ㉠준비하시라고 하셔.

경준: 시인 소개 모둠 과제 말이지?

영희: 응.

경준: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있으셨니?

영희: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네가 직접 선생님께 ㉢물어서 알아봐.

경준: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영희: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자기의 애송시라고 ㉣말했잖아.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김소월의 시 세계를 주제로 하여 발표해 보는 건 어때?

- ① ㉠ : 주체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② ㉡ :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③ ㉢ : 윗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여쭙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④ ㉣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⑤ ㉣ :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출처: 2015학년도9월모평B / 정답 = (1+1+1+4+2)-3×2-1

13. 다음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점]

-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 ②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③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 ⑤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출처: 2015학년도수능A / 정답 = (1+3+5+7)-4×3-3+4

15.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한 자리 서술어 : 꽃이 피었다.
- 두 자리 서술어 :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세 자리 서술어 : 동생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②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 ③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
- ④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출처: 2015학년도수능AB / 정답 = (1+1+1+4+2)-3×2-1

14. <보기 1>의 ㉠~㉣ 중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는 데에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1> —

문장을 수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 문장의 필수 성분이 다 갖추어져 있는가?
- ㉡ 조사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 어미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 불필요한 의미 중복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 <보기 2> —

수정 전	지난여름 청소년 문화 교류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은 각 지역에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수정 후	지난여름 청소년 문화 교류단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 지역의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출처: 2016학년도6월모평AB / 정답 = 7+6+5+4+3+2+1-3×8

12.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동사의 어간에 연결 어미 ‘-(으)며’가 결합할 때,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고, ‘-(으)며’를 연결 어미 ‘-(으)면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에 ‘-(으)며’는 앞뒤 문장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예) 철수가 음악을 듣는다. + 철수가 커피를 마신다.
→ 철수가 음악을 들으며(들으면서) 커피를 마신다.

- ① 우리는 함께 걸으며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 ② 모두들 음정에 주의하면 노래를 제대로 부르자.
- ③ 아는 사람 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 ④ 마라톤 선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 ⑤ 출근할 때, 일부는 버스를 이용하면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한다.

14. <자료>와 같이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사항을 <보기>의 ㉠~㉣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부사어와 연결 어미의 호응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목적어의 누락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궁리하기 시작했다.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탈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 피동의 중복

- 그것은 오래전에 불려지던 노래이다.
-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노래이다.

— <자 료> —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수록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작성할 수 있다.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서술어의 문형 정보를 바르게 추출한 것은?
[3점]

—<보 기>—

서술어의 필수적 문장 성분은 사전의 문형 정보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형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지내다’의 예로 간략히 보이면 아래와 같다.

[‘지내다’의 문형 정보 추출 과정]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수가 요즘에 조용하게 <u>지내</u>다. • 할아버지가 노년에 편하게 <u>지내</u>신다.
↓	
문장 성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어: 민수가, 할아버지가 • 부사어: 요즘에, 조용하게, 노년에, 편하게
↓	
필수적 문장 성분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어: 민수가, 할아버지가 • 필수적 부사어: 조용하게, 편하게
↓	← 주어 제외
문형 정보	【-계】

15.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 ①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②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눈길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 ③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 ④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 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예문	문형 정보
① 이 나라는 국토가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다. ② 요즘에 가죽으로 된 지갑이 인기가.	→ 【…으로】
② 모두 그 속임수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③ 제 껍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간 풀이다.	→ 【-계】
③ 나는 언니와 옷 때문에 다투기도 했다. ④ 그는 누군가와 한밤중에 다투곤 했다.	→ 【…에】
④ 가방에 지갑이 사은품으로 딸려 있다. ⑤ 그 책에 단어장이 부록으로 딸려 있다.	→ 【…으로】
⑤ 옷에서 때가 깨끗하게 빠졌다. ⑥ 청바지에서 물이 허영게 빠졌다.	→ 【-계】

출처: 2016학년도9월모평B / 정답 = 9+7+5-11-8-1

출처: 2016학년도수능AB / 정답 = 13-7-5+1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A]~[C]는 안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① ㉠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② ㉠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③ ㉡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④ ㉡ { 친구가 나에게 준 웃이 나는 마음에 든다.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⑤ ㉢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출처: 2017학년도6월모평 / 정답 = 7-2-2

12. <보기1>의 관점에서 <보기2>의 ㉠~㉣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1>—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긴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므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과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첫 분석 층위에서 주어 ‘내 동생은’과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로 그 직접 구성 요소가 분석된다. 또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한 층위 아래에서 ‘엄마의 칭찬을’과 ‘많이 받았다’로 나뉜다. 또한 ‘내 동생’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내’와 ‘동생’인데, 이처럼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인접하면 그 두 요소는 바로 위 층위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에서 ‘언니가’는 관형사절 속에 포함된 주어일 뿐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즉 가장 위 층위에 있는 직접 구성 요소는 ‘언니가 찾던 책이’임을 알 수 있다.

—<보기2>—

- ㉠ 지희는 목소리가 곱다.
- ㉡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 ㉢ 동수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
- ㉣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 ① ㉠은 ‘지희는’과 ‘목소리가 곱다’로 분석되겠군.
- ② ㉡은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분석되겠군.
- ③ ㉢은 ‘동수가’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분석되겠군.
- ④ ㉣은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와 ‘밝혀졌다’로 분석되겠군.
- ⑤ ㉤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과 ‘명언이다’로 분석되겠군.

출처: 2017학년도9월모평(변형) / 정답 = 7-3-2

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 영희 어머니께서는 “내 동생은 착해.”라고 말씀하셨다.
 ㉡ 영희 어머니께서는 내 동생이 착하다고 말씀하셨다.

㉠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직접 인용이고, ㉡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풀어 쓴 간접 인용이다. 그런데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나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인용절 속의 어미, 인용 조사, 대명사, 지시 표현, 높임 표현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직접 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	
간접 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 사무실에 (㉡) 말했습니다.
↓	
직접 인용	언니는 어제 “나의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라고 나에게 말했다.
↓	
간접 인용	언니는 어제 (㉢)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 나에게 말했다.

- | | ㉠ | ㉡ | ㉢ | ㉣ |
|---|----|------|-----|------|
| ① | 오늘 | 있으라고 | 자기의 | 남기라고 |
| ② | 어제 | 계시라고 | 자기의 | 남겨라고 |
| ③ | 오늘 | 있으라고 | 나의 | 남겨라고 |
| ④ | 오늘 | 계시라고 | 자기의 | 남겨라고 |
| ⑤ | 어제 | 계시라고 | 나의 | 남기라고 |

출처: 2017학년도9월모평 / 정답 = 7-3-3

1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①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②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③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④ ㉠은 주어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⑤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출처: 2018학년도6월모평 / 정답 = 8-3-3

13.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 ② · 함박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펑펑’이 부사어로 쓰였군.
- ③ · 그는 너무 험 차를 한 대 샀다.
⇒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하는군.
- ④ ㉠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 *영이는 닮았다.
㉡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 영이는 책을 읽는다.
⇒ ㉠의 ‘엄마와’, ㉡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의 ‘엄마와’는 ㉡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군.
- ⑤ ㉢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의 ‘재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 ‘*’는 비문임을 나타냄.

15.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탐구 과제
하나의 문장이 안긴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각 문장에서 안긴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자료

- ㉠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안긴문장의 종류	생략된 문장 성분
① ㉠	부사절	없음
② ㉡	명사절	없음
③ ㉢	명사절	주어
④ ㉣	관형절	부사어
⑤ ㉤	관형절	목적어

14.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 ① ㉠의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 하는군.
- ② ㉡의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 ③ ㉢의 ‘별을’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군.
- ④ ㉠의 ‘좋은’과 ㉢의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군.
- ⑤ ㉡의 ‘눈이 부시게’와 ㉢의 ‘반짝이는’은 수식의 기능을 하는군.

출처: 2019학년도수능 / 정답 = 8-3-2

11. <보기>는 국어사전을 토대로 ‘맛’과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그려 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맛 ㉠ 음식 따위를 혀에 닿 때에 느끼는 감각.
 ㉡ 제격으로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기분.

(..... : 다의 관계, ⇄ : 유의 관계, ←→ : 반의 관계, ⇕ : 상하 관계)

- ① “여행을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의 ‘맛’은 ㉠과 다의 관계이다.
- ②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다.”의 ‘단맛’은 ㉠의 하의어이고, ‘단맛’과 반의 관계인 ‘쓴맛’도 ㉠의 하의어이다.
- ③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의 ‘재미’가 ㉡과 유의 관계라면, ㉠과는 다의 관계가 된다.
- ④ “시세가 올라 이익을 본 상인이 많다.”의 ‘이익’이 ㉢과 유의 관계라면, ㉡의 표시는 ‘늑’이 알맞다.
- ⑤ “소설의 결말을 알면 흥미가 반감된다.”의 ‘흥미’와 ‘이익’ 사이에서는 <보기>에 제시된 의미 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은 주어진 부호로는 표시할 수 없다.

출처: 2010학년도6월모평 / 정답 = 7×3-2×9

12. <보기>를 통해 감탄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보 기>—

아 들: 아버지, 저도 바둑을 배워서 명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뭘, 명인이 된다고?
 아 들: ㉡예,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 사 주세요.
 아버지: ㉢글쎄, 사 줘야 되나?
 아 들: 사 주세요, ㉣예?
 아버지: 얼마 전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농구공을 사 줬더니 작심삼일이었잖아. 이번에도 흐지부지할 거지?
 아 들: 그런데, ㉤음, 작심삼일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그건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 들: ㉥아니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버지: 명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 들: ㉦글쎄요, 같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볼게요.

- ① ㉠은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군.
- ② ㉡은 긍정하여 대답하는 의미로, ㉢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군.
- ③ ㉣이 ㉤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군.
- ④ ㉥이 문장의 중간에 쓰인 것을 보면 독립어의 기능을 할 수 없겠군.
- ⑤ ㉥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의 ‘아니’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겠군.

출처: 2010학년도6월모평 / 정답 = (3+1+2)×3-2×7-1

11.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 2>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A + B’로 구성된 관용 표현에서 단어나 구절에 해당하는 두 요소 ‘A’ 혹은 ‘B’ 중 어느 한 쪽이 생략되어도 전체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 쏠림’이라고 한다. 이때 남은 ‘A’ 혹은 ‘B’가 명사라면 ‘이다’를 붙여 서술어를 만든다.

—<보기2>—

ㄱ. 시치미를 떼다 ⇒ 시치미이다

ㄴ. 뒷북을 치다 ⇒ 뒷북이다

ㄷ.

바가지를 씌우다	}	⇒ 바가지이다
바가지를 굶다		

ㄹ. ㉠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다 ⇒ ㉡오리발을 내밀다 ⇒ 오리발이다

ㅁ. 무릎을 치다 ⇏ 무릎이다

- ① ㄱ은 ‘A’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② ㄴ, ㅁ을 보니 관용 표현에 쓰인 서술어를 보면 의미 쏠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의미 쏠림 후의 ‘바가지이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군.
- ④ ㄹ의 ㉠ ⇒ ㉡는 ‘B’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⑤ ㄹ을 보니 어떤 관용 표현은 의미 쏠림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군.

출처: 2010학년도9월모평 / 정답 = (1+1+1+4+2)-3×2-1

12.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인용 발화로는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어떤 사람의 말을 남에게 전달하는 말을 인용 발화라 한다. 책, 신문, 방송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을 전달하는 말도 인용 발화로 본다. 인용 발화는 대개 특수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일반 발화와 구분되어 쓰이나, 간혹 일반 발화도 인용 발화의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① 지금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답니다.
- ② 어제는 열차가 30분이나 연착했답니다.
- ③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 ④ 어렸을 적에 저는 개구쟁이였답니다.
- ⑤ 그 나라 풍습은 정말 흥미롭답니다.

출처: 2010학년도9월모평 / 정답 = (1+3+5+7)-4×3-3

11. <보기 1>의 ㄱ~ㄷ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a~c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1>—————

음성 언어에서 특정 소리를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단어 A와 B가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ㄴ. 단어 A와 B가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
 ㄷ. 단어 A가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보기2>—————

a. [설령탕을 시켜 머거라]라는 말만 들어서는 설령탕을 식혀 먹으라는 뜻인지, 주문해 먹으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b. [그 팀이 이연패를 했따]라는 말만 들어서는 그 팀이 두 번 연속해 졌다는 뜻인지, 두 번 연속해 우승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c. [가스미 아프다]라는 말만 들어서는 신체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뜻인지,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ㄱ		ㄴ		ㄷ
①	a		b		c
②	a		c		b
③	b		a		c
④	b		c		a
⑤	c		a		b

출처: 2010학년도수능 / 정답 = (1+3+5+7)-4×3-1

11.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한 ㉠~㉣의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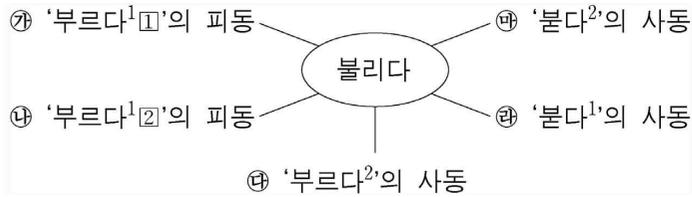
—————<보 기>—————

부르다1 ㉠ ①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②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부르다2 ㉡ ③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

붙다1 ㉢ ④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붙다2 ㉣ ⑤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 ① ㉠ :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라고 불렀다.
- ② ㉡ : 반장이 가장 먼저 불려 갔다.
- ③ ㉢ : 주먹밥 하나로 아이들의 주린 배를 불릴 수는 없었다.
- ④ ㉣ : 그는 요즘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빠져 있다.
- ⑤ ㉣ : 메주를 썬다면 콩을 물에 불려야 한다.

출처: 2011학년도6월모평 / 정답 = (3+1+2)×3-2×7-1

12. <보기>의 [A]에 들어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화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출처를 ‘직접 경험’, ‘추측’, ‘전해 들음’으로 구분하여 문장에 담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구나.”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지금 직접 봄’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확인되는데, 그러한 의미는 어미 ‘-구나’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비가 많이 오더라.”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직접 봄’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확인되는데, 그러한 의미는 어미 ‘-더-’를 통해 드러난다.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도 정보의 출처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진 어미들이다.

[A]

- ① 딸 : 오늘 날씨 어떻대요?
아버지 : 눈이 아주 많이 온대.
- ② 여학생 :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남학생 : 나는 조금 있다가 먹을래.
- ③ 학생 1 : 선생님께서 출석을 점검하러서.
학생 2 : 어찌지? 철수가 아직도 안 왔네.
- ④ 김 대리 : 김 과장님 공항에 도착하셨을까?
이 대리 : 한 시간쯤 지났으니까 도착하셨을걸.
- ⑤ 아들 :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시원하네요.
어머니 : 집에 있어서 몰랐지만, 어제는 무척 더웠잖어.

출처: 2011학년도6월모평 / 정답 = (1+1+1+4+2)-3×2-1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보 기> —

요리에서 재료를 가공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동사들 중에 ‘다지다 : 빵다 : 찢다 : 찢다’ 같은 것들이 있다. 아래에서 이들의 용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자.

```

    graph TD
        Q1[도구를 사용합니까?] -- 아니오 --> A[㉠]
        Q1 -- 예 --> B[㉡]
        Q2[칼을 사용합니까?] -- 아니오 --> C[㉢]
        Q2 -- 예 --> D[㉣]
        Q3[재료를 아주 잘게 만듭니까?] -- 아니오 --> A
        Q3 -- 예 --> C
    
```

- | | | | |
|-------|----|-----|-----|
| ㉠ | ㉡ | ㉢ | ㉣ |
| ① 빵다 | 찢다 | 찢다 | 다지다 |
| ② 빵다 | 찢다 | 다지다 | 찢다 |
| ③ 찢다 | 빵다 | 찢다 | 다지다 |
| ④ 찢다 | 빵다 | 다지다 | 찢다 |
| ⑤ 다지다 | 찢다 | 빵다 | 찢다 |

출처: 2011학년도9월모평 / 정답 = (1+3+5+7)-4×3-3+2

11. <보기>의 분류 절차에 따라 용례를 A와 B로 나눈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분류 절차>

- 각 용례에서 동사 ‘들다’의 의미를 확인함.
- 확인한 의미의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함.

<용례>

ㄱ. 감기가 들다.	ㄴ. 가방을 들다.
ㄷ. 단풍이 들다.	ㄹ. 고개를 들다.
ㅁ. 반기를 들다.	ㅂ. 보험을 들다.

- | | | |
|---|------------|------------|
| | <u>A</u> | <u>B</u> |
| ① | ㄱ, ㄷ | ㄴ, ㄹ, ㅁ, ㅂ |
| ② | ㄱ, ㄷ, ㅁ | ㄴ, ㄹ, ㅂ |
| ③ | ㄱ, ㄷ, ㅂ | ㄴ, ㄹ, ㅁ |
| ④ | ㄱ, ㄹ, ㅁ | ㄴ, ㄷ, ㅂ |
| ⑤ | ㄱ, ㄷ, ㄹ, ㅂ | ㄴ, ㅁ |

출처: 2011학년도수능 / 정답 = (2×7)-(2×3)-3-1-1

11.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반의어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반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이다. ㉠반의 관계는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를 때 성립한다. 가령 ㉡ ‘총각’의 반의어가 ‘처녀’인 것은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의어는 반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반의어에는 ㉢ ‘금속’, ‘비금속’과 같이 한 영역 안에서 상호 배타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보(모순) 반의어, ㉣ ‘길다’, ‘짧다’와 같이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어서 중간 단계가 있는 등급(정도) 반의어, ㉤ ‘행’, ‘아우’와 ‘출발선’, ‘결승선’ 등과 같이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방향(대칭) 반의어가 있다.

- ① ㉠ : 두 단어가 공통 의미 요소만 가지고 있어도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 ② ㉡ : ‘손녀’와 ‘할아버지’는 ‘연령’이라는 의미 요소만 다르므로 서로 반의 관계에 있다.
- ③ ㉢ : ‘선배가 아닌 사람’은 모두 ‘후배’이므로 ‘선배’와 ‘후배’는 상보 반의어이다.
- ④ ㉣ : ‘길다’를 부정한 ‘길지 않다’는 ‘길다’의 반의어인 ‘짧다’와 똑같은 의미이다.
- ⑤ ㉤ : ‘가다’와 ‘오다’는 이동 방향에서 상대적 관계를 가지므로 방향 반의어에 포함된다.

출처: 2012학년도6월모평 / 정답 = (1+1+1+4+2)-3×2-1+3

1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들’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보 기〉—

- 들⁵ 【조사】 (체언,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합성 동사의 선행요소 및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들⁹ 【접사】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어머니 : ㉠어서들 오세요. 차를 준비할 동안 거실에서 말씀들 나누고 계세요.

손님 1 : 좀 전에 ㉡밖에서들 마시고 왔으니 그냥 앉으세요.

손님 2 :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디 보냈나요?

어머니 : 옷 갈아입는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철수야, 영희야! 빨리 ㉣나와서들 인사 드려라.

철수, 영희 : 예. (잠시 후, 나와서) 안녕하세요!

손님 2 : 그래, 잘 있었니? 못 본 사이에 ㉤많이들 컸구나.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출처: 2012학년도6월모평 / 정답 = (3+1+2)×3-2×7-1

11. <보기>를 참고할 때, ㉠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둘 이상의 단어가 어휘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단위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거운 짐’은 ‘무거운’ 대신 ‘가벼운, 큰’ 등이 쓰일 수 있고, ‘짐’은 ‘돌, 책임’ 등과 자유롭게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무거운 짐목’은 ㄴ과 같이 ‘가벼운, 큰’ 등이 ‘무거운’을 대신하여 쓰이기 어렵고, ㄷ에서 확인되듯이 ‘무거운 짐’과 달리 앞뒤 순서를 바꾸면 부자연스럽거나 의미가 달라진다. 즉, ㉠‘무거운 짐목’은 고정된 형식으로 ‘정적이 흐르는 상태가 매우 심하다’는 일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 ㄱ. {무거운 / 가벼운 / 큰……} {짐 / 돌 / 책임……}
 - ㄴ. {무거운 / *가벼운 / *큰……} 짐목
 - ㄷ. 짐이 무겁다. / 짐목이 *무겁다.
- *는 부자연스러운 어휘.

- ① 꽃다운 나이, 높다란 나무
- ② 진정한 친구, 싹누런 들판
- ③ 차가운 공기, 막다른 골목
- ④ 뜨거운 눈물, 새파란 젊음이
- ⑤ 팽팽한 대결, 가벼운 발걸음

출처: 2012학년도수능 / 정답 = (2×7)-(2×3)-3-1

12. <보기>와 같이, 밑줄 친 파생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풀어서 표현한 것은?

—〈보 기〉—

밤중에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잘못 디디지)

- ① 그는 눈을 치뜨고 정면을 응시하였다. (→가늘게 뜨고)
- ② 문이 망가져 널빤지를 뒹대어 수리했다. (→접쳐 대어)
- ③ 당시에 그 나라에는 도적이 들끓었다. (→안에서 끓었다)
- ④ 간호사가 환자의 팔에 붕대를 되감았다. (→친친 감았다)
- ⑤ 동생이 가마솥 속의 팔죽을 휘젓고 있다. (→원형으로 젓고)

출처: 2013학년도6월모평 / 정답 = (1+1+1+4+2)-3×2-1

11. <보기>는 준말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와 그 예시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 기>—

○ ‘ㅏ, ㅑ, ㅓ, ㅕ,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ㅐ, ㅑ, ㅓ, ㅕ, ㅡ’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본형	파이다	㉠
용례	깊게 파인 구덩이	깊게 ㉡ 구덩이

○ ‘ㅐ, ㅑ’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용례	구덩이가 깊게 ㉢	구덩이가 깊게 ㉣

- | | | |
|-------|----|-----|
| ㉠ | ㉡ | ㉢ |
| ① 패다 | 팬 | 패었다 |
| ② 패다 | 팬 | 패었다 |
| ③ 패다 | 패인 | 패었다 |
| ④ 패이다 | 팬 | 패었다 |
| ⑤ 패이다 | 패인 | 패었다 |

출처: 2013학년도9월모평 / 정답 = (1+3+5+7)-4×3-3

12.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는 그 폭포의 장대한 물줄기에 입이 벌어졌다. (→ 매우 놀라다)
- ② 이 가게에는 누나의 눈에 차는 물건이 없는 것 같다. (→ 마음에 들다)
- ③ 사람들은 산불을 진화하지 못해 동동 발을 굴렀다. (→ 안타까워하다)
- ④ 그녀는 손이 재기로 유명해서 잔치마다 불러 다닌다. (→ 일 처리가 빠르다)
- ⑤ 나는 동생이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해서 혀를 내둘렀다. (→ 안쓰러워하다)

출처: 2013학년도9월모평 / 정답 = (2×7)-(2×3)-3-1+1

12.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녔을 경우, 각각의 의미에 따라 반의어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시계가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인데, ‘공연을 서서 보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앉다’가 된다.

단어	예문	반의어
빼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	대다
	(가)	넣다
	적금을 빼서 빚을 갚았다.	(나)

	(가)	(나)
①	풍선에서 바람을 빼다 .	꽃다
②	설날이 다가와서 가래떡을 빼다 .	더하다
③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 .	찾다
④	새집 냄새를 빼다 .	박다
⑤	이번 경기에서는 그를 빼다 .	들다

출처: 2013학년도수능 / 정답 = (3+1+2)×3-2×7-1+2

13. 다음은 ‘치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치다¹ 동【…을】

- ㉠ 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세게 닿거나 부딪게 하다.
 ¶ 날아오는 공을 치다/주먹으로 얼굴을 치다.
- ㉡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다.
 ¶ 손뼉을 치다/피아노를 치다.

[속담] **치러 갔다가 맞기도 예사** 남에게 무엇을 요구 하러 갔다가 도리어 요구를 당하는 일도 흔히 있다는 말.

치다² 동【…을】

- ㉠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다.
 ¶ 양을 치다/삼촌은 돼지를 쳐서 생계를 유지한다.
- ㉡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다.
 ¶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 제법 무성하다.

- ① ‘치다’와 ‘치다²’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겠군.
- ② ‘치다’ ㉠ 뜻의 유의어로는 ‘때리다’가 가능하겠군.
- ③ ‘치다’의 속담은 ‘치다’와 ‘맞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 ④ ‘치다’ ㉠ 뜻을 보니 ‘아이를 기르다.’의 의미로 ‘아이를 치다.’를 쓸 수는 없겠군.
- ⑤ ‘치다’ ㉡ 뜻의 용례로 ‘농부가 밭으로 잔가지를 쳐 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출처: 2014학년도예비시행A / 정답 = (1+1+1+4+2)-3×2-1+3

15.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바라다¹ [바라, 바라니] ㉠【…을】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 요행을 바라다 /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한다.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바래다¹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 ㉠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빛 바랜 편지 / 색이 바래다

㉢ 【…을】 별에 찍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이불을 별에 바래다

- ①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¹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이다.
- ④ 바래다¹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받음된다.
- ⑤ 바래다¹㉢의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출처: 2014학년도6월모평AB / 정답 = (3+1+2)×3-2×7-1+2

1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갈-리다¹ ㉠

① ‘갈다¹ ①’의 피동사.
 ㉡ 멧돌에 콩이 갈리다.

② ‘갈다¹ ②’의 피동사.
 ㉢ 벼루에 먹이 잘 갈리다.

갈-리다² ㉠ ‘갈다²’의 피동사.
 ㉡ 논이 깊이 갈리다.

- ① ‘갈-리다¹’을 보니, ‘갈다¹’은 다의어이겠군.
- ② ‘갈-리다¹’과 ‘갈-리다²’를 보니, ‘갈다¹’과 ‘갈다²’는 품사가 다르겠군.
- ③ ‘갈-리다¹’을 보니, ‘갈-리다¹’은 ‘갈다¹’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이겠군.
- ④ ‘갈-리다¹ ①’을 고려할 때, ‘갈다¹ ①’의 용례로 ‘멧돌에 콩을 갈다.’가 가능하겠군.
- ⑤ ‘갈-리다²’를 고려할 때, ‘갈다²’는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이겠군.

출처: 2014학년도9월모평A / 정답 = (1+1+1+4+2)-3×2-1

15. 다음의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 학습 활동지 ◆

중의성 있는 문장	중의성 해소 방법
예쁜 모자의 장식품이 돋보였다.	‘장식품’이 예쁜 경우에는 ㉠ “ <u>예쁜, 모자의 장식품이 돋보였다.</u> ”로 고친다.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에는 ㉡ “ <u>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u> ”로 고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 “ <u>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u> ”로 고친다.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 “ <u>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u> ”로 고친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 “ <u>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u> ”로 고친다.

- ① ㉠은 “모자의 예쁜 장식품이 돋보였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② ㉡은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로도 고칠 수 있다.
- ③ ㉢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④ ㉣은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⑤ ㉤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도 고칠 수 있다.

출처: 2014학년도9월모평AB / 정답 = (1+3+5+7)-4×3-1

12.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 ㉠ ①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 ②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형은 방금 집에 왔다.
- ③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에서㉡

- ①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③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① ‘에’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에서’는 격 조사로만 쓰이는군.
- ② ‘에㉡’의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에서㉢’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를 들 수 있겠군.
- ④ ‘에㉠①’의 용례에 쓰인 ‘에’는 ‘에서’로 바꿔 쓸 수 없군.
- ⑤ ‘에㉠②’의 용례에 쓰인 ‘에’를 ‘에서’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군.

출처: 2014학년도수능A / 정답 = (2×7)-(2×3)-3-2

15.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보 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계시다).....㉠
- 객체를 높이는 용언(㉡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진지).....㉡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출처: 2014학년도수능AB / 정답 = (1+3+5+7)-4×3-1

1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목표	실제 담화를 분석하여,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탐구 자료	[은미의 고모가 은미 집을 찾아온 상황] 할머니: 어서 와라. ㉠ <u>김</u> 서방도 잘 지내지? 고 모: 네, 엄마. ㉡ <u>그</u> 이도 잘 지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엄 마: 네, ㉢ <u>아가씨</u> . 배고프실 텐데 과일 좀 드세요. 고 모: 고마워요, 언니. 은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은 미: 아니에요, ㉣ <u>고모</u> . 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 고 모: 응, ㉤ <u>고모부</u> 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
탐구 결과	(가)

- ① ㉠과 ㉡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을 보면,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③ ㉠과 ㉣을 보면,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④ ㉡과 ㉤을 보면,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⑤ ㉢과 ㉤을 보면,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출처: 2015학년도6월모평AB / 정답 = (1+1+1+4+2)-3×2-1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크다 ① ㉠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 눈이 크다/글씨를 크게 적는다.
 ㉢ 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

크다 ② ㉠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키가 몰라보게 크는구나.

반의어 크다 ① ↔ 작다

작다 ㉠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
 ㉡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반의어 작다 ↔ 크다 ①

- ① ‘크다 ①’과 ‘크다 ②’는 품사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 것이겠군.
- ② ‘크다 ① ㉠’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꾸면 ‘작다 ㉠’의 용례가 되겠군.
- ③ ‘크다 ②’는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작다 ㉢’과 반의 관계를 이루겠군.
- ④ ‘작다 ㉡’의 용례로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를 들 수 있겠군.
- ⑤ ‘작다 ㉢’의 용례로 ‘작은 실수를 하다.’를 들 수 있겠군.

출처: 2015학년도9월모평AB / 정답 = (3+1+2)×3-2×7-1

12.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어말 어미 ‘-았-/-(으)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오늘 아침에 누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나) 들판에 안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다)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농사는 다 지었다.

(가)에서와 같이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와 같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경우와 달리 (나)의 경우에는 ‘-았-/-(으)었-’을 보조 용언 구성 ‘-아/-어 있-’이나 ‘-고 있-’으로 교체하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다)에서와 같이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 [A : 어제 뭐 했니?
B :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았어.
- ② ㉡ [A : 너 아까 집에 없더라.
B : 할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어.
- ③ ㉢ [A : 감기 걸렸다면?
B : 응, 그래서인지 아직도 목이 잡겼어.
- ④ ㉣ [A :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B : 아주 나빴어.
- ⑤ ㉣ [A : 너 오늘도 바빠?
B : 응,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갔어.

출처: 2015학년도수능A / 정답 = (2×7)-(2×3)-3-1

1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단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중심적 의미가 ㉡주변적 의미로 확장되어 다의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일례로 자연과 관련된 단어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로 쓰이다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 여름이 오기 전에 홍수를 대비한다.
 (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가)의 ‘홍수’는 중심적 의미로, (나)의 ‘홍수’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① [㉠: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
 ㉡: 어제 물리학계의 큰 별이 졌다.
- ② [㉠: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 그는 도망가는 데만큼은 정말 번개야.
- ③ [㉠: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노력한다.
 ㉡: 잡초가 다시 자라지 않도록 뿌리를 뽑았다.
- ④ [㉠: 일출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 그녀는 그가 자기 마음의 태양이라고 말했다.
- ⑤ [㉠: 들판에는 풀잎마다 이슬이 맺혔다.
 ㉡: 그녀의 두 눈에 맺힌 이슬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출처: 2016학년도6월모평A / 정답 = 7+6+5+4+3+2+1-3-4-5-6-7

15.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어제 낮엔 많이 바빴니? 전화를 바로 끊더라.
 B: 아니야, 끊은 게 아니라 ㉠끊어진 거야. 바로 전화 못해서 미안해.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A: 아니, ㉡저기, 심각한 건 아니고. 어제 점심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기다려도 안 오길래 말이야.
 B: ㉢아차!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
 A: ㉤자세히 말해 볼래?
 B: 동생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거든.
 A: 그런 일이 있었구나. 동생은 좀 괜찮나?

- ①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이 B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 ② ㉡: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B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관심을 유도한다.
- ③ ㉢: 감탄사를 사용하여 A의 발화를 듣고 어떤 것을 갑자기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 ④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B에게 일어난 상황이 불가피했음을 나타낸다.
- ⑤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B에게 일의 까닭을 상세히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

출처: 2016학년도6월모평AB / 정답 = 1+2+3+4-5-3

15.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는 문장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 유형들은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① [A : 괜찮다면,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릴래요?
B : 좋아요. 10분만 더 기다려요.
- ② [A : 다친 곳은 어쩐가? 한번 보세.
B :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졌습니다.
- ③ [A : 저기요. 먼저 좀 내립시다.
B : 아, 예. 저도 여기서 내려요.
- ④ [A : 저 혹시,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
B : 제가 방해가 되었군요. 미안합니다.
- ⑤ [A : 어디 보자. 내가 다 챙겼나?
B : 거기서 혼자 뭐 해요. 빨리 나와요.

출처: 2016학년도9월모평AB / 정답 = 1+3+5+7-6-4-1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나)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다.
(다)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가)에서처럼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고 있-’은 ‘-는 중이-’로 교체하여도 ㉠의 의미가 유지되지만, (나)의 ‘-고 있-’은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한편 (가), (나)에서는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다)에서는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고 있-’이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 ① ㉠ [A :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B :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 ② ㉡ [A :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B :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 ③ ㉡ [A :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B :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 ④ ㉢ [A : 너 안경 잃어버렸다며? 괜찮아?
B : 눈이 아주 나빠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 ⑤ ㉢ [A : 저 중에 신입 사원이 누구야?
B : 저기에 있잖아. 넥타이를 매고 있네.

출처: 2016학년도수능A / 정답 = 13-5-3-1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걸어가며)
아들: 엄마, 올해 마지막 날 엄마와 쇼핑 나와서 참 좋아요.
엄마: ㉠엄마도 영수랑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
아들: 어, 저거 뭐지? 엄마, 저 옷 가게 광고판 좀 보세요.
엄마: 뭐? ㉡저거?
아들: 네, ㉢저거요. ‘2015년 12월 30일, ㉣오늘 하루만 50% 할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엄마: 그래? 그러면 ㉤어제였네. ㉥누나 옷 사야 되는데.
아들: 엄마, 그 옆 가게는 오늘까지 할인하는데요. 그런데 제 옷도 사 주시면 안 돼요?
엄마: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 ㉧영수도 옷 사 줘야지.
아들: 와, 잘됐다. 다음 주 여행 갈 때 입고 가야겠다.

- ① ㉠과 ㉥은 청자의 관점에서 사용한 지칭어이다.
- ② ㉠과 ㉦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③ ㉡과 ㉣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 ④ ㉢과 ㉥은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
- ⑤ ㉥과 ㉧은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킨다.

출처: 2016학년도수능B / 정답 = 25-17-5+2

1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 생: 선생님, 다음 두 문장을 보면 모두 ‘가깝다’가 쓰였는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2) 그의 말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
선생님: (1)의 ‘가깝다’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음”을 뜻하고, (2)의 ‘가깝다’는 “성질이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함”을 뜻한다. 이는 본래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던 것이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학 생 :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깝다’는 여러 의미를 지닌 단어로군요.
선생님 : 그렇지. 그래서 ‘가깝다’는 다의어란다.

	㉠	㉡
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②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힘든 만큼 기쁨이 큰 법이다.
③	두 팔을 최대한 넓게 벌렸다.	도로 폭이 넓어서 좋다.
④	내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다.	마음이 좁아서는 곤란하다.
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작다.

출처: 2017학년도수능 / 정답 = 7-4-2

13. <보기>의 담화 상황에서 ㉠~㉡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수빈, 나경, 세은이 대화를 하고 있다.)
 수빈 : 나경아, 머리핀 못 보던 거네. 예쁘다.
 나경 : 고마워. ㉠우리 엄마가 얼마 전 새로 생긴 선물 가게에서 사 주셨어.
 세은 : 너희 어머니 참 자상하시네. 나도 그런 머리핀 하나 사고 싶은데 ㉡우리 셋이 지금 사러 갈까?
 수빈 : 미안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 일이 있어 못 갈 것 같아.
 세은 :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우리끼리 가지, 뭐.
 나경 : 그래, 수빈아. 다음엔 꼭 ㉤우리 다 같이 가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출처: 2018학년도9월모평 / 정답 = 6-1-2

15. <보기>는 사전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개정 전	개정 후
㉠	굵다 ㉠ 「1」 손톱이나 뽀족한 …… : 「9」 ……	굵다 ㉠ 「1」 손톱이나 뽀족한 …… : 「9」 …… 「10」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다.
㉡	김-밥[김 : 밥] ㉡ ……	김-밥[김 : 밥/김 : 밥] ㉡ ……
㉢	냄새 ㉢ 「1」 코로 맡을 수 …… : 내음 ㉢ ‘냄새’의 방언(경상).	냄새 ㉢ 「1」 코로 맡을 수 …… : 내음 ㉢ 코로 맡을 수 있는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	태양-계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9개의 행성, ……	태양-계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8개의 행성, ……
㉤	(표제어 없음)	스마트-폰 ㉤ 휴대 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 사전의 개정 내용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임.

- ① ㉠ : 표제어의 뜻풀이가 추가되어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가 수정되었군.
 ② ㉡ : 표준 발음이 추가로 인정되어 기존의 표준 발음과 함께 제시되었군.
 ③ ㉢ : 방언이었던 단어가 표준어의 지위를 얻고 뜻풀이도 새롭게 제시되었군.
 ④ ㉣ : 과학적 정보를 반영하여 뜻풀이 일부가 갱신되었군.
 ⑤ ㉤ : 새로운 문물을 지칭하는 신어가 표제어로 추가되었군.

출처: 2018학년도수능(변형) / 정답 = 6-4-1

16.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의미 변화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랏 ㉠말씀미 中 國國에 달아 文文字字와로 서르 스몓디 아니홀씩
이런 전츠로 ㉡어린 百百姓성이 니르고져 흥 배 이셔도 ㅁ츨내 제 ㅁ
들 시러 퍼디 ㅁ홍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嬴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字字를 ㅁㅁ노니 사롬마다 ㅎ여 수비 니겨 날로 ㅁ뻔
便便安한키 ㅎ고져 흥 ㅁㅁ미니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의 ‘말씀’은 ‘말’을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뜻하니까 의미 확대의 예야.
- ② ㉡의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를 뜻하니까 의미 축소의 예야.
- ③ ㉢의 ‘놈’은 ‘사람’을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놈’은 남자를 낮잡는 의미로 쓰이니까 의미 확대의 예야.
- ④ ㉣의 ‘하다’는 ‘많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란 뜻이니까 의미 축소의 예야.
- ⑤ ㉤의 ‘어엿보다’는 ‘가엾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예쁘다’는 ‘모양이 작거나 섬세하여 눈으로 보기에 좋다’란 뜻이니까 의미 이동의 예야.

출처: 2014학년도예비시행B / 정답 = (3+2+1+2)-2×3+3

16. <보기>의 ㉠과 ㉡에 속하는 사례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 기〉—

모음 ‘·’는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제1 단계 변화에서는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가 ‘ㅡ’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 제2 단계 변화에서는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가 ‘ㅏ’로 변화하였다. 단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단계의 변화를 겪어 ‘·’는 모음 체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 | |
|-----------|---------|
| ㉠ | ㉡ |
| ① 마늘 > 마늘 | 흙 > 흙 |
| ② 사슴 > 사슴 | ㅁ장 > 가장 |
| ③ 하나 > 하나 | 오늘 > 오늘 |
| ④ 사롬 > 사람 | ㄷ리 > 다리 |
| ⑤ 아들 > 아들 | 다섯 > 다섯 |

출처: 2014학년도6월모평B / 정답 = (1+1+1+4+2)-3×2-1

16. <보기 1>의 (가), (나)에 따른 표기의 사례를 <보기 2>의 ㉠~㉣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가) ㅇ를 입시울쏘리 아래 니서 쓰면 입시울 가비야쁜 소리 드외느니라
[풀이]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나) 첫소리를 어울워 꿩디면 굴바 쓰라
[풀이]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나란히 써라.

—<보기 2>—

나랏 말썽미 中등國궐에 달아 文문字쥱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
 흘썸썸 이런 전츠로 어린 百궐姓성이 니르고져 흥 배 이셔도
 ㉠므츨내 제 ㅼ들 시러 궐디 몬흥 노미 하나라 내 이를 爲嬴ᄒ
 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뵤 字쥱를 ㉡땡ᄒ노니 사름마다 히
 ᄒ ㉢수비 니겨 날로 ㅼ메 便ᄒ安한ᄒ ᄒ고져 흥 ㉣ㅼ르미니라
 - 『훈민정음』 언해 -

- | | | | | | |
|---|------------|------------|---|------------|------------|
| | <u>(가)</u> | <u>(나)</u> | | <u>(가)</u> | <u>(나)</u> |
| ① | ㉠ | ㉡ | ② | ㉠ | ㉣ |
| ③ | ㉢ | ㉣ | ④ | ㉣ | ㉡ |
| ⑤ | ㉣ | ㉣ | | | |

출처: 2014학년도9월모평B / 정답 = (3+2+1+2)-2×3+2+1

16.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
 ㉠ 자음 ‘ㄷ’과 ‘빙’이 존재하였다.
 ㉡ 초성에 오는 ‘ㅼ’은 ‘ㄴ’과 ‘ㄷ’이, ‘ㅼ’은 ‘ㄴ’과 ‘ㅅ’이 모두 받음되었다.
 ㉢ 종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받음되었다.
 ㉣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
 ㉤ 연철 표기(이어적기)를 하였다.

(나) 나랏 :말썽·미 中등國·궐에 달·아 文문字·쥱·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흘·썸·썸 ·이·런 전·츠·로 어·린 百·궐·姓·성·이 니·르·고·져 ·흥 ·배
 아·셔·도 ᄒ·츨·내 제 ·ㅼ·들 사·러 궐·디 :몬·흥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嬴·ᄒ·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 여·뵤 字·쥱·를 땡·ᄒ
 노·니 :사·름·마·다 :히·ᄒ :수·비 니·겨 ·날·로 ·ㅼ·메 便·ᄒ·安·한·ᄒ
 ᄒ·고·져 흥 ㅼ·르·미·니·라

- ① ㉠을 보니, ‘:수·비’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군.
- ② ㉡을 보니, ‘:ㅼ·들’의 ‘ㅼ’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받음되었군.
- ③ ㉢을 보니, ‘:어·엿·비’에서 둘째 음절의 종성은 ‘ㄷ’으로 받음되었군.
- ④ ㉣을 보니, ‘:히·ᄒ’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은 성조가 달랐군.
- ⑤ ㉤을 보니, ‘:ㅼ·메’에는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군.

출처: 2014학년도수능B / 정답 = (3+1+2)×3-2×7-1

1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보기 1>—————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만 있지만,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익, 의, 스, ㅣ’가 있었다. 이 중 ‘익, 의, 스’은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명사		관형격 조사
의미 특징	끝 음절 모음	
사람이나 동물	양성 모음	+ 익
사람이나 동물	음성 모음	+ 의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	양성 모음/음성 모음	+ 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님	양성 모음/음성 모음	+ 스

(예)
 늑+익 : 늑익 뽕 거스디 아니흐거든 (늑의 뽕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거북+의 : 거북의 터리 곧고 (거북의 털과 같고)
 大王+스 : 大王스 말쓰미사 올커신마른 (대왕의 말씀이야 옳으시지만)
 나무+스 : 나무스 여름 먹느니 (나무의 열매 먹으니)

—————<보기 2>—————

◦ 父母ㅣ 아들+㉠ 마를 드르샤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어)
 ◦ 다섯 글워+㉡ 글워를 날굴 디니라 (다섯 수레의 글을 읽어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익 | 스 | ② | 스 | 익 |
| ③ | 의 | 스 | ④ | 스 | 의 |
| ⑤ | 익 | 의 | | | |

출처: 2015학년도6월모평B / 정답 = (3+1+2)×3-2×7-1-2

16.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 : 뒤해는 모던 도죽 알피는 어드븐 길헤 업던 번개를 하눌히 불기시니
현대어 역 : 뒤에는 모진 도적 앞에는 어두운 길에 없던 번개를 하늘이 밝히시니
중세 국어 : 뒤해는 모던 중싱 알피는 기픈 모새 열븐 어르물 하눌히 구티시니
현대어 역 : 뒤에는 모진 짐승 앞에는 깊은 못에 얹은 얼음을 하늘이 굳히시니

- ① ‘모던’이 현대 국어의 ‘모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 ② ‘업던’이 현대 국어의 ‘없던’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어적기를 하였군.
- ③ ‘하눌히’를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 ‘·’가 쓰였군.
- ④ ‘모새’가 현대 국어의 ‘못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 ⑤ ‘열븐’을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자음 ‘빙’이 쓰였군.

출처: 2015학년도9월모평B / 정답 = (1+1+1+4+2)-3×2-1

1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기 1> —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ㅎ’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언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뒤따르는 조사	‘ㅎ’ 종성 체언의 실현 양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예: ㅅㅏ히 (ㅅㅏ+이) 즐어들 (ㅏ이 질거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난다. 예: ㅅㅏ토 (ㅅㅏ+도) 뛰더니 (ㅏ도 움직이더니)
관형격 조사 ‘ㅅ’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 다른 ㅅㅏ (ㅅㅏ+ㅅ) 風俗은 (다른 ㅏ의 풍속은)

— <보기 2> —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나랑+울) 아스 맛디고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 (깊+ㅅ) 네거리예	길의 네거리예
㉢ (얹+과) 밧	안과 밖

- | | ㉠ | ㉡ | ㉢ |
|---|-----|---|----|
| ① | 나라홀 | 깊 | 안과 |
| ② | 나라홀 | 깊 | 안과 |
| ③ | 나라홀 | 깊 | 안과 |
| ④ | 나라을 | 깊 | 안과 |
| ⑤ | 나라을 | 깊 | 안과 |

출처: 2016학년도6월모평B / 정답 = 2+4+6+8-7-5-4-3

16.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 료> —

[중세 국어] 五欲은 누네 도흔 빗 보고져 귀에 도흔 소리 듣고져 고해 도흔 내 맡고져 이베 도흔 맛 먹고져 모매 도흔 옷 낚고져 흘 씨라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오욕은 눈에 좋은 빗 보고자,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코에 좋은 냄새 맡고자, 입에 좋은 맛 먹고자, 몸에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것이다.

- ① ‘五欲은’이 ‘오욕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보조사 ‘은’이 있었군.
- ② ‘누네 도흔 빗 보고져’가 ‘눈에 좋은 빗 보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누네 도흔 빗’은 목적어로 쓰였군.
- ③ ‘귀에’가 ‘귀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부사격 조사 ‘예’가 있었군.
- ④ ‘도흔’이 ‘좋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도흔’은 용언의 관형사형이었군.
- ⑤ ‘먹고져’가 ‘먹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고져’는 종결어미로 쓰였군.

출처: 2016학년도9월모평B / 정답 = 8+6+4-7-5-1

1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王(왕)이 니르샤되 大師(대사) ㉠흐산 일 아니면 뉘 혼 거시 잇고
 ㉡仙人(선인)이 슬보되 大王(대왕)하 이 ㉢南堀(남굴)스 仙人(선인)
 이 혼 썩를 길어 내니 양직 端正(단정)하야 ㉣世間(세간)애 ㉤쉽디
 묻흐니 그 썩 흐늬 ㉥時節(시절)애 자취마다 ㉦蓮花(연화)ㅣ 나느니
 이다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왕이 이르시되 “대사 하신 일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선인이
 아뢰되 “대왕이시여, 이 남굴의 선인이 한 딸을 길러 내니 모습이
 단정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못하니 그 딸 움직일 시
 절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 ① ㉠에서는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의 ‘이’와 ㉢의 ‘ㅣ’는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군.
- ③ ㉢을 보니 ‘스’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④ ㉣과 ㉤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군.
- ⑤ ㉣과 현대 국어의 ‘쉽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출처: 2016학년도수능B / 정답 = 19-8-7-2

11.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빙’, ‘△’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박’도와, ‘더버’>더워’에서와 같이 ‘ㅍ’ 또는 ‘ㅍ’ 앞에서는 반모음 ‘ㄹ / ㄹ [w]’로 바뀌었고, ‘도북시니’>도오시니’, ‘셔볼’>셔울’에서와 같이 ‘·’ 또는 ‘ㅡ’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ㄴ’ 또는 ‘ㄴ’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ㅍ’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 16세기 중엽에 ‘아스’>아으’, ‘저서’>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ㅍ’으로 나타났다.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박’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ㅍ’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의 소실로 어간의 끝 ‘△’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뚝고’와 현대 국어의 ‘뚝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젓고’와 현대 국어의 ‘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출처: 2017학년도6월모평(변형) / 정답 = 7-3-2

12. <보기>를 참고하여,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 <보 기> —

‘빙’, ‘△’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도와’, ‘더벼>더워’에서와 같이 ‘ㅂ’ 또는 ‘ㄱ’ 앞에서는 반모음 ‘ㄱ / ㅈ [w]’로 바뀌었고, ‘도벗시니>도오시니’, ‘셔블>셔울’에서와 같이 ‘·’ 또는 ‘ㅡ’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고’ 또는 ‘구’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 16세기 중엽에 ‘아스>아으’, ‘저서>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 곱다	곱게	고바	고븨	곱게	고와	고은
② (선을) 긋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눅다	눅게	누벼	누븨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븨	잡게	자바	자븨

출처: 2017학년도6월모평(변형) / 정답 = 8-5-2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하늘벼리 눈 곧 디니이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나) 王이 부터를 講흐스 븃쇼셔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다) 어머니를 아라보리로소니잇가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라) 내 이를 위흐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 내가 이를 위해서)

(마) 그 물 미퉁 金물에 잇느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 ① (가) :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스’이 쓰였다.
- ② (나)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술-’이 쓰였다.
- ③ (다) : 판정 의문문의 ‘-아’ 계열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
- ④ (라)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ㅣ’가 쓰였다.
- ⑤ (마) :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출처: 2017학년도9월모평 / 정답 = 9-3-1

13.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학습 활동> —————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u>ㅁㅅㅁ</u> <u>ㅅ</u> 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u>열</u> 어
㉡	[중세 국어] 自然히 <u>ㅁㅅㅁ</u> <u>ㅅ</u> 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u>열</u> 리어
㉢	[중세 국어] 번개 구르믈 <u>흐</u> 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u>흐</u> 어
㉣	[중세 국어] 散心은 <u>흐</u> 튼 <u>ㅁㅅㅁ</u> 라
	[현대 국어] 산심은 <u>흐</u> 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 ㉠와 ㉡를 보니, _____ (가)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출처: 2017학년도수능 / 정답 = 7-2-2

15.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1> —————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먼저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다.
 ○ 상네 쓰는 히 일후미라(일후+이라) (보통 쓰는 해의 이름이다)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 牛頭는 쇠 머리라(머리+라) (우두는 소의 머리이다)

그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가 나타났다.
 ○ 生佛은 사라 겨신 부테시니라(부터+ㅣ시니라) (생불은 살아 계신 부처이시다)

————— <보 기2> —————

- 齒는 ㉠ (치는 이이다)
- 所는 ㉡ (소는 바이다)
- 樓는 ㉢ (누는 다락이다)

	㉠	㉡	㉢
①	니이라	바이라	다락라
②	니라	배라	다락ㅣ라
③	니이라	바라	다락ㅣ라
④	니라	배라	다라기라
⑤	니ㅣ라	바이라	다라기라

출처: 2018학년도6월모평 / 정답 = 7-2-1

14.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 ㉠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다.
- ㉡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 ㉢ 높임의 호격 조사로서 현대 국어에 없는 형태가 있었다.
- ㉣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
- ㉤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보기 2>—

- ㉠ **므슴 마랏 니르느뇨** [무슨 말을 말하느냐?]
- ㉡ **저므며 늘구미 잇느녀** [젊으며 늙음이 있느냐?]
- ㉢ **虛空과 벼를 보더시니** [허공과 별을 보시더니]
- ㉣ **世尊하 내 堂中에 이셔 몬져 如來 보습고** [세존이시여, 내가 집 안에서 먼저 여래 뵈고]

- ① ㉠의 '니르느뇨'와 ㉡의 '잇느녀'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의 '마랏'과 ㉢의 '벼를'을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의 '世尊하'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의 '보더시니'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의 '보습고'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출처: 2018학년도9월모평 / 정답 = 7-1-1

1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엇던 사름고 (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A]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보 기>—

-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 [자료]** (가) 중세 국어 : 15세기 국어 • 누를 니르더뇨 (누구를 이르던가?) / • 네 스승이 누고 (네 스승이 누구인가?) / • 늑든 누구 (남은 누구인가?)
- (나) 근대 국어 • 이 벗은 누고고 (이 벗은 누구인가?) / • 저 혼 벗은 누구고 (저 한 벗은 누구인가?)
- (다) 현대 국어 • 누구를 찾으세요? / • 누구에게 말했어요?

[탐구 내용] _____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 ①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누고', '누구'이다.
-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출처: 2018학년도수능(변형) / 정답 = 7-5-1

현대 국어에서 ‘-(으)ㄴ’이나 ‘-이’가 결합된 단어들 중에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명사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 ‘걸음’,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 ‘-(으)ㄴ’과 ‘-이’가 중세 국어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형태만으로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으)ㄴ’은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으/으)ㄴ’과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음’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흔 거름 나소 거름(한 걸음 나아가도록 걸음)’에서 확인된다. ‘걸-’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이나 용언 어간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으)ㄴ’과 ‘-음’이 각각 결합한다.

앞서 말한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익/의’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나뭇 노퍽(나무의 높이)’와 ‘노피 느는 저비(높이 나는 제비)’에서 확인된다. ‘높-’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어근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명사 파생 접미사 ‘-의’가 결합한다. 그런데 부사 파생 접미사는 ‘-이’ 하나여서 모음조화에 상관없이 ‘-이’가 결합한다.

11. 밑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흔 여름 여루미(좋은 열매 열림이)’에서 ‘여름’과 ‘여름’의 형태를 보니, 이 둘의 품사가 다르겠군.
- ② ‘거름’과 ‘거름’의 형태를 보니, ‘거름’은 파생 명사이고 ‘거름’은 동사의 명사형이겠군.
- ③ ‘거름’과 ‘노퍽’의 모음조화 양상을 보니, 중세 국어 ‘높-’에는 ‘-음’이 아니고 ‘-음’이 결합하겠군.
- ④ ‘노퍽’과 ‘노피’의 형태를 보니, ‘노퍽’은 파생 부사이고 ‘노피’는 파생 명사이겠군.
- ⑤ 중세 국어의 형용사 ‘곧다’, ‘곧다’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군.

출처: 2019학년도6월모평(변형) / 정답 = 7-2-1

1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하는 예로만 묶인 것은?

—————<보 기>—————

현대 국어에서 ‘-(으)ㄴ’이나 ‘-이’가 결합된 단어들 중에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명사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 ‘걸음’,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하다. 이는 용언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과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의 형태가 같고, ‘높다’ 등의 일부 형용사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형태가 같기 때문이다.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반면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리고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 등을 수식한다.

- ① 많이 앞이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
- ② 멸치 볶음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오빠는 몹시 기쁨에도 내색을 안 했다.
- ③ 요즘은 상품을 큰 뭍음으로 파는 가게가 많다.
무용수들이 군무를 춤과 동시에 조명이 켜졌다.
- ④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보람을 찾는 이도 있다.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에도 그 일은 맡기고 싶지 않다.
- ⑤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수술 뒤 친구가 밝게 웃음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출처: 2019학년도6월모평(변형) / 정답 = 7-2-1

14.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음운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어간 말음 조건	형태	용례
‘ㄱ, ㅂ, ㅅ, ㅎ’일 때	-습-	돕습고
‘ㄷ, ㅈ, ㅊ’일 때	-줍-	묻줍고
모음이나 ‘ㄴ, ㄹ, ㄷ’일 때	-습-	보습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술-, -줍-, -습-’으로 실현되었다.

- 아래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이다.
 - 王(왕)이 부텨기 더욱 敬信(경신)흔 므스물 내스바
[왕이 부처께 더욱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
- 어간 ‘듣-’과 어미 ‘-으며’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활용했다.
 - 내 아래브터 부텨기 이런 마를 묻 (㉡)
[내가 예전부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으며]

- | | |
|--------|------|
| ㉠ | ㉡ |
| ① 王(왕) | 듣즈븍며 |
| ② 王(왕) | 듣스븍며 |
| ③ 부터 | 듣즈븍며 |
| ④ 부터 | 듣스븍며 |
| ⑤ 므습 | 듣스븍며 |

출처: 2019학년도9월모평 / 정답 = 7-1-3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소나무’는 중세 국어에서 ‘ㄹ’이 탈락한 합성어 ‘소나모’로 나타난다.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자립 명사 ‘이튿’과 ‘날’ 사이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이툷 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근대 국어로 오면서 ‘ㄹ’이 탈락한 합성어 ‘이툷날’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 가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자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툷날’의 표기와 관련하여 ‘이툷날’로 적도록 했다. 그러나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하는 관점에서는 ‘ㄷ’ 대신 ‘ㅅ’으로 적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탐구 주제]
○ ‘숯가락’은 ‘젓가락’과 달리 왜 첫 글자의 받침이 ‘ㄷ’일까?

[자료]

중세 국어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자브며 저 논느니(숯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 • 숯 근(숯가락의 끝), 젓 가락 근(젓가락 끝), 수저(수저) • 물(무리), 몯 사릅(몯사람, 여러 사람) 	
근대 국어의 예	현대 국어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숯가락 장스(숯가락 장사) • 몯사릅(몯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로 밥을 뜨다 • 숯가락으로 밥을 뜨다 • 밥 한 술

※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중세 국어 ‘술’과 ‘저’는 중세 국어 ‘이툷’처럼 자립 명사라는 점에서 현대 국어 ‘숯’과는 차이가 있군.
- ② 중세 국어 ‘술’과 ‘저’의 결합에서 ‘ㄹ’이 탈락한 합성어가 현대 국어 ‘수저’로 이어졌군.
- ③ 중세 국어 ‘술’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중세 국어 ‘이툷’이나 ‘물’과 같이 모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할 수 있었군.
- ④ 근대 국어 ‘숯가락’이 현대 국어에 와서 ‘숯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툷날’의 경우와 같군.
- ⑤ 현대 국어 ‘숯가락’과 ‘몯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중세 국어 ‘숯’과 ‘몯’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ㄹ’이 탈락한 후 남은 ‘ㅅ’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군.

출처: 2019학년도수능 / 정답 = 9-2-2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③ 12.③ 30.①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② 12.①
 2010학년도 수능 11.③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③ 12.②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③ 12.⑤
 2011학년도 수능 11.③ 12.⑤ 38.④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⑤ 12.③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⑤
 2012학년도 수능 11.④ 12.②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⑤ 12.② 42.① 43.②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① 12.⑤
 2013학년도 수능 11.① 12.⑤
 2014학년도 예비시행A 11.② 12.③ 13.⑤ 14.③ 15.⑤
 2014학년도 예비시행B 11.② 12.③ 13.① 14.③ 15.⑤ 16.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A 11.④ 12.③ 13.② 14.⑤ 15.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B 11.⑤ 12.③ 13.③ 14.⑤ 15.⑤ 16.②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A 11.④ 12.③ 13.② 14.① 15.③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B 11.④ 12.① 13.③ 14.① 15.③ 16.⑤
 2014학년도 수능A 11.③ 12.③ 13.④ 14.⑤ 15.③
 2014학년도 수능B 11.② 12.① 13.② 14.⑤ 15.③ 16.③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A 11.① 12.③ 13.⑤ 14.① 15.②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B 11.② 12.③ 13.⑤ 14.② 15.① 16.①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A 11.① 12.② 13.④ 14.③ 15.①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B 11.⑤ 12.⑤ 13.② 14.③ 15.① 16.②
 2015학년도 수능A 11.③ 12.④ 13.⑤ 14.⑤ 15.②
 2015학년도 수능B 11.⑤ 12.② 13.② 14.③ 15.⑤ 16.③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A 11.④ 12.① 13.③ 14.④ 15.②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B 11.⑤ 12.① 13.⑤ 14.④ 15.② 16.①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A 11.② 12.⑤ 13.① 14.③ 15.⑤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B 11.② 12.① 13.① 14.③ 15.⑤ 16.⑤
 2016학년도 수능A 11.③ 12.③ 13.④ 14.② 15.②
 2016학년도 수능B 11.⑤ 12.④ 13.⑤ 14.② 15.② 16.②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①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 ② 12. ② 13. ③ 14. ① 15. ⑤
 2017학년도 수능 11. ① 12. ⑤ 13. ③ 14. ③ 15. ④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 ③ 12. ① 13. ① 14. ② 15. ④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 ② 12. ① 13. ③ 14. ⑤ 15. ①
 2018학년도 수능 11. ④ 12. ① 13. ③ 14. ② 15. ①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 ④ 12. ④ 13. ① 14. ① 15. ⑤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 ⑤ 12. ④ 13. ① 14. ③ 15. ④
 2019학년도 수능 11. ③ 12. ② 13. ⑤ 14. ③ 15. ⑤